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5호
2023년 1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지중해의 하늘을 날다

아침 7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한시간 가량 산 속을 올랐다. 해발 7000피트가 넘는 산 정상이란다. 하늘을 날았다. 발 밑으로는 지중해의 맑고 푸르디 푸른 바다와 구불구불 이어진 산맥이 보였다. 11년 전 뉴질랜드 퀸즈타운을 여행할 때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젠 차원이 달랐다.

경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웠고 바람은 시원했고 45분 하늘을 날면서 나는 명상에 빠져 편안하고 신나는 시간을 즐겼다. 또 하고 싶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서 엔돌핀과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날은 운이 좋았다. 산 정상에 오른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날씨는 좋았고 바람도 세지 않았고 나를 하늘로 안내한 파일럿은 친절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이었다.

혹 “아니 어떻게?” 겁먹은 동문이 있을까봐 알려드린다. 패러글라이딩, 아주 간단하다. 파일럿이 준 낙하산 시트백을 메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허리 피고 열심히 달리면 된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

정선주(간호대 68)
<관계기사 14면>

“밥먹고 소모임하고 그러면 빨리 친해져요”

뉴잉글랜드 젊은 동문들 모임 관악회 창립 3년 만에 회원 170여명 급성장

서울대 뿐 아니라 모든 동창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동문 영입이다. 연세가 들어 운전이 힘들어지면서 모임에 못나오는 선배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동창회를 이어갈 젊은 동문들은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드느냐가 동창회의 최대 숙제가 됐다.

미주 각 지역 서울대 동창회 중에 젊은 동문들 모임이 따로 결성된 곳이 몇 곳 있다.

남가주에 있는 관악연대는 동송동에서

관악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1975년 이후 학번들 모임이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잦은 점심 모임, 저녁 모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인터넷 신문 아크로폴리스타임즈까지 만들면서 회원수가 300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화려했던 과거가 됐다.

워싱턴DC에는 1975학번에서 1999학번까지의 모임인 아크로폴리스와 2000년 이후 학번 모임인 샬로수가 있다. 7명의 동문이 참여하는 편집팀이 매달 뉴

스레터를 자체 제작하고 2010년 남가주 관악연대 만큼이나 다양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6월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젊은 동문 참여성 공사례로 특별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바로는 “그때는 참 즐거웠는데...”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시카고에도 80년대 학번 이후 모임인 관악클럽이 결성돼 함께 불링도 치고 조만간 LA피트니스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등 모임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뉴잉글랜드 지부의 청년 모임인 관악회(회장 정해원)다. 2021년 창립해 이제 3년차에 불과하지만 매년 4월과 9월 정기 야유회를 열고 있고 참여 동



관악회를 이끌고 있는 정해원 동문과 신진우(왼쪽) 동문.
[신진우 동문 제공]

문 수도 60명에서 100명, 가족까지 포함해 지난해 9월 야유회에는 130명이 모였다. 보스턴 거주 정회원은 178명, 단체 카톡방 참여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2면으로 계속>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NYT는 ‘가짜 뉴스’ 대신 ‘잘못된 정보’란 용어 쓴다

설즈버거 NYT 회장 모교서 특강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NYT의 사명
요즘 기자들 NYT 팟캐스트에 기사 올리는게 목표”

아서 그레고 설즈버거(A.G. Sulzberger) 뉴욕타임스 회장이 지난 10월 19일 모교를 찾아 ‘자유 언론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the Free Press)’이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을 했다.

1896년 뉴욕타임스를 인수한 아돌프 옥스의 4대 후손인 그는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발행인을 맡고 있다.

설즈버거 회장은 강연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요소로 저널리즘 산업의 침체, 빅테크의 정보 전과 생태계, 사회 양극화 등을 들었다.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그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분류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쉬워졌다. 언론은 그런 흐름에 따르기를 거부해야 한다”며 “설령 진실이 대중적이지 않고, 곤란하게 만들더라도 언론인은 진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언론인은 어려운 질문을 하고, 크로스체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인의 책무도 강조했다. 동석한 캐롤라인 라이언 편집국장은 2016년 트럼프의 남세 논란을 파헤친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보도는 충격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치열했던 취재 뒷이야기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우편함으로 문건을 제보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기자의 시점에서 상세히 밝힌 기사는 이례적이었지만 저널리즘의 정수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자평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생각을 묻자 설즈버거 회장은 “뉴욕타임스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정말 음흉한(insidious) 말”이라고 했다. “역사적으



로 ‘가짜 뉴스’,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순간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치 독일, 스탈린주의 소련 등이 나라를 장악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제거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는 “뉴욕타임스에선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disinformation)’라는 말을 쓴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환경을 통제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 또한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다. 뉴욕타임스의 유료 디지털 구독자 수는 지난해 2월 기준 1000만명에 달한다. 그는 “아직도 디지털 전환은 진행 중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는 저널리즘과 다른 미디어들을 찾아내고 참여하는 인류 역사의 파괴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그동안 잘해온 만큼 만족할 수도 있었고 더 어려웠지만 우리는 변화하려는 자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기자들의 목표는 신문 1면에 실리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엔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 ‘The Daily’에 기사를 올리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구독 비즈니스의 핵심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졌는가 여부다.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종이 신문 발행을 멈출까”란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낙관적이었다. “20년 전부터 신문의 종료를 예측해왔고, 젊은이들이 신문과 멀어지고 있지만, 신문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정말로 신문에 충성도가 높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신문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구성원은 대학원생 80여명, 박사후과정 70여명, 직장인 40여명, 교수 10여명 등 말그대로 ‘진짜’ 젊은 동문 모임이다.

관악회를 만들고 키운 초대 회장인 신진우(농생대 2004) 동문에게 비결을 물었다. “다들 바쁘니까 정기 모임은 1년에 두 차례 부담없이 모여서 3시간 정도 가볍게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제한했고 대신 단체 카톡방(이하 단톡방)을 통해 뜻이 맞는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거나 소모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요.”

우선 관악회 단톡방에는 초대 절차가 있다. 집행부가 먼저 카톡 인터뷰를 한다. 그런 후 단톡방으로 초대한다.

관악회 회원 자격은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으로 한정했다. 80년대 학번은 재정적인 후원만 가능하지만 회원 자격이 없다.

또한 단톡방은 무료가 아닌 한 달에 990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를 택해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도 이전에 오갔던 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신규 회원에 대한 배려이면서도 공식 카톡방이 가능한 이유다. 이를 통해서 입학, 졸업, (교수)임용, 수상, 결혼, 출산, 부고 등을 전한다.

또 모임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동문들끼리 향후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 자기 소개 및 주소록, 연락처를 수록한 공용 주소록 페이지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관악회는 10명을 한 조로 조장을 정해 1차 테이블 모임을 가진 후 조원과 조장을 서플래 2차 테이블 모임을 갖는다. 최근 열린 야유회에 참석한 F조 모임 관악회원들. [신진우 동문 제공]

사실 단체 카톡방, 바비큐 야유회는 거의 모든 지부 동창회들이 해오던 것이어서 아무리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동창회 활성화의 비결로 꼽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해 신 동문은 자신들이 하는 소규모 그룹 모임을 예로 들었다. 그의 설명을 요약했다.

10명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 여기까지는 같다. 하지만 2가지가 다르다.

우선 조장이 있다. 10명도 소모임이므로 리더가 필요하다. 10명을 몰아넣고(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동문들이 각각 인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마련이다. 조장이 꼭 선배일 필요도 없다.

두번째 다른 점은 1차 테이블이 40분만

에 끝나면 2차 테이블이 열린다. 테이블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면 바로 옆 자리 사람과 명함 한 두개 교환하는게 최선이다.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자존심 강한 ‘서울대 출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테이블을 열고 다른 조장과 다른 조원들이 서플래(섞기)를 통해 헤어 모여서 다른 얘기를 나누게 한다. 이런 테이블 소그룹의 장점은 ‘군중 속의 고독’을 피할 수 있게 하다.

이렇게 ‘섞는 테이블 모임’은 조장의 지휘 아래 최소한 20명을 동문회 적극 참여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관악회는 불과 2년 만에 여러 소그룹도 만들었다. 육아 모

임, 운동 모임, 90년생, 85년생 동갑 모임이 생겼고 뜻이 맞는 동문들끼리 연말 모임도 갖고 있다.

관악회 운영 소요 예산은 연 5000달러 수준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공식 지원금이 3000달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인 후원금이 차지한다. 회원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회비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최근 회장을 맡은 정해원 동문(자연대 2002)은 “관악회는 동창회 산하의 동아리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뉴잉글랜드 지부 총회와 야유회에도 참여하고 장학사업 홍보와 기금 모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운영하는 포럼과 강사진에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늘었고 지부 25주년 기념 문집 발간 사업에 10명 이상의 젊은 동문이 원고로 참여했다. 정 동문은 “MIT를 비롯해 보스턴에만 수백명의 서울대 동문이 있는데 관악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주를 통할하는 지부로 이 지역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이 몰려 있는 곳이다.

덕분에 서울대 동문들의 상당수가 석박사 과정이나 박사후 연구원들이 많다. 유학을 끝내고 정착한 동문들과 비교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남가주 동창회, 금난새 지휘로 신년 음악회 연다

1월7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극장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난민 성금도 모금
모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등 후원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명인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연출 지휘하는 '코리아-LA 챔버 오케스트라'의 남가주 신년 음악회가 내년 1월7일 오후 4시 UC 어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Barclay Theater)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여름 금난새 지휘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의 앵콜 공연으로 전쟁과 지진 등 세계적 재난에 대한 '평화와 화합의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난민들을 위한 구호성금 모금도 겸하게 된다.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활동 다변화와 한미 친선교류도 모색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번 공연을 주관했던 한국의 서울대 총동창회와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가 지원하며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 회장(삼익악기 대표)이 행사를 후원한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는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젠킨스의 '팔라디오', 레스피기의 '옛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중 3번 '파사칼리아'를 연주한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니스 김이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협연하며 이윤석 씨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무디의 '톨레도', 더글라스 메이섹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투랄데의 '작은 춤곡', 지익환 씨가 기타를 연주하는 다인스의 '탱고엔 사카이' 등도 연주한다.

이 행사의 미주 쪽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의 김경무 회장은 "지난 여름 디즈니홀에서 성남시 교향악단과 금난새지휘자의 공연에 호평이 이어졌고 세계적 재난에 대한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타이틀과 레퍼토리로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전쟁과 지진 등 재난으로



지난 여름 디즈니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 이어 남가주 동창회 신년음악회를 지휘하는 한국의 금난새 지휘자.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도 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은 "한미 문화교류와 미주 동포 위로의 뜻도 포함한 이같은 공연이 연례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의미도 있다"며 "미주 한인사회의 많은 동포들과 우수한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

대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후원기업이나 단체의 예약 위주로 티켓 배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화와 화합의 신년콘서트'는 1월 9일 오후 5시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snuaaconert2024@gmail.com
김인중(17대 미주동창회 고문·농대 74)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10월 10일 모교에서 채정자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고 최병성 동문 부인 채정자씨 모교에 40만 달러 장학금 쾌척

앨라배마대 수학과 교수를 지내고 지난 2021년 별세한 최병성(수학과 46) 동문의 부인 채정자씨가 모교에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딴 '수리과학부 최병성 채정자 장학기금' 40만 달러를 쾌척했다.

고 최병성 동문은 1957년 서울대 수학과 조교수를 지내고 1961년 유학 와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앨라배마대 수학과 교수로 30여년 봉직했다.

최 동문의 아내 채정자씨는 세계기독교 간호재단 앨라배마지부 회장으로 앨라

배마대에서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앨라배마 터스컬루사의 재향군인회 의료센터에서 20년간 감염관리실무자이자 HIV/AIDS 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채정자씨는 "서울대 동문이자 교수였던 남편이 가졌던 모교에 대한 애정을 기리며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민자로 근검절약해 모은 기부금에 대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고 생각하니 기쁘고 설레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준 동문, 공군 감사패 받아 유자녀 돕는 장학재단에 매년 기부

"우연히 알게 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 도왔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미주 동창회 3대 회장을 역임한 이병준 동문(상대55.세아USA 회장)이 지난 10월20일 공군본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동문이 이날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게 된 까닭은 5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 동문은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로 학사출신 갑종장교로 공군에서 복무했다.

그는 5년전 동기생들과 임관 60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가 전투조종사 훈련 중 산화한 초급 장교들의 유자녀를 돕는 장학단체인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듣고 매년 돕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군 측에서는 전역 후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공군을 잊지 않음은 물론, 코로나 기간에도 잊지 않고 계속 후원했던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준 동문은 "공군 출신이라서 영공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다"면서 "산화



지난 10월20일 이병준(왼쪽) 동문이 공군본부에서 당시 공군참모총장인 정상화 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면서 세상에 남겨둔 자녀를 생각했을 초급 장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잊지 않고 도왔다"고 밝혔다.

수의대 ‘좌석 기부’ 캠페인 미주 동문 참여 열기

스코필드 박사 이름 딴 홀 좌석에 기부자 이름 새겨

6000만원 가까이 건네

모교의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코필드 홀 좌석 기부 캠페인에 미주 수의대 동문들의 참여가 뜨겁다.

수의대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인 헌신을 했던 스코필드 박사의 이름을 딴 스코필드 홀은 수의대의 핵심공간으로, 2022년 4월에 재단장을 마치고 미래 수의학도를 위한 연구 학술활동의 주요 시설로 자리잡았다.

수의대측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 연구활동 지원, 도서 및 연구기자재의 확충과 후생복지시설을 위해 스코필드 홀 좌석기부 모금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국내외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해 왔다.

좌석 기부 모금은 동문 기부자가 스코필드 홀의 좌석 번호를 지정해 기부하면 좌석에 기부자 이름을 새겨주게 된다.

올해 성제경 수의대 학장의 미국 방문으로 접화된 미주 동문들의 좌석 기부 참여는 현재 최재을(80·500만원) 최용



모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홀 좌석 등받이에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스코필드 홀은 지난해 4월 재단장을 마치고 수의대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준(81·4000달러) 이사균(75·3900달러) 김기택(81·500만원) 유형규(66·8000달러) 박종수(58·4000달러) 강동원(75·4000달러) 권동일(80·500만원) 신동국(76·500만원) 김현영(58·100만원) 김용진(91·104만원) 이용훈(84·104만원) 김문소(61·100만원) 문두환(90·100만원) 등과 미대의 한귀희(68·650만원) 동문 등이 십시일반 참여해 10월 현재 한화로 5596만원(약 4만 3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성제경 수의대 학장은 “우리 수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면서 AVMA 인증을 포함해 교육, 연구, 임상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도약을 위한 공간개선 및 확보, 실습시설 증설, 인턴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의대 학생들의 학업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장학사업, 글로벌 인프라 구

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수의대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미주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가주에서 이번 캠페인에 앞장섰던 최용준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행사가 더욱더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파이팅!”을 외쳤다.

김인중(농대 74)

“남 돕고 나누는 삶 살았더니...”

신동국 동문,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수상 모교 뿐 아니라 고향 강원대도 통 큰 기부

8월 중순 최용준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으로부터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수상 후보자로 올린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행상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였다. 6년만의 한국 방문이었다.

9월 24일 수의대 학장실에 가니 많은 선배들과 수상자들이 와 있었다. 전체 3명에게 수여했는데 한국에서는 양돈사업을 하는 선배가 받았고 미주에서는 나 혼자였다.

수상자로서 5분간 스피치를 하면서 학생 복지를 위한 좌석 기부 모금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다. 미주 수의대 동문들이 이 캠페인에 5만 달러 가까운 돈을 기부했다. 미주 수의대 동문 숫자는 전체 수의대 동문의 3% 정도 되지만 모교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 나는 우리 부부, 사위 가족, 아들 가족, 손주 2명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2005년 초빙교수로 모교에 갔을 때 1만 달러, 2017년 1만 달러 그리고 올해 500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서 2005년 강원대 수의대에

1만 달러를 기부했고 2017년부터 10년 약정으로 강원대 수의대에서 장학생 1명을 뽑아 매해 1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학재단인 ‘미션 글로벌리제이션(Mission Globalization)’을 만들어 그동안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433명에게 26만5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4회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고 학생들에게 각자의 꿈과 비전에 대해 3분간 스피치를 하게 한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지만 2~3년 지나면 써온 종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취업 면접을 잘해 여러 좋은 직장 합격했다. 스피치를 꾸준히 한 덕에 면접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강원대 수의대에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2억원을 기부하기로 새로 약정을 했다. 15년을 하는 이유는 그 정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지금 내 나이가 60대 후반이라 80대



신동국(가운데 꽃 든 사람) 동문이 지난 9월 모교에서 자랑스런 수의대인상을 받고 가족, 친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초반까지는 영육간에 활동이 원활할 것이라 생각해서였다. 일차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 강원대는 여러면에서 낙후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서울에서 돌아와 서울대 수의대 학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고 이영소 학장님의 손자로 노워크에서 동물병원을 크게 운영하는 경상대 수의대를 나온 이시경 수의사와 그 병원의 부원장으로 강원대 수의대를 나온 최협 수의사를 만났다. 내가 강원대 수의대를 후원한다는 소식에 그분들도 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상대와 강원대 수의대에서 각각 매년 두 명을 선발해 미국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가 인생 모토로 삼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일은 때가 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라, 둘째는 내가 성공하는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셋째는 나누는 삶을 살기를, 넷째는 Be humble, mercy and love, 다섯째가 God bless You다.

내가 한 기부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마치 신이 축복을 한듯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나의 세상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문들도 그런 기적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신동국(수의대 76)

판소리 최우수상 받고 국악계 든든한 후원자로

전 한미은행 이사장 박창규 동문(약대 59)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은퇴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은퇴 후의 인생을 우리는 조금 힘이 빠졌다는 의미, 혹은 덤이나 보너스라는 의미로 흔히 ‘제2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박창규(약대 59) 동문의 제 2막은 청년처럼 열정적이어서 남다르다.



박창규 동문과 부인 김벌리 박씨.

박창규 동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개 약국이나 은행을 떠올리기 쉽지만 은퇴 후 원래하고 싶던 예술을 마음껏 하는 예술인 박창규로 기억해야 한다. 또한 미주 한국 국악의 영원한 후원자로 기록돼야 한다.

은퇴는 사업을 했던 사람 치고는 조금 이른 58세였다.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돈 버는 일은 멀리하며 돈 쓰는 일을 찾았고 돈 보다 더 나은 것을 얻고 있다.

박 동문은 “어려서 이은관의 배뱅이굿, 강옥주의 회심곡을 좋아했다”며 “평생 판소리를 꿈꿨는데 음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음악에 빠진 최근 일상에 대해서 얘기했다.

판소리는 물론, 색소폰과 아코디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 취미 생활에 그치지 않고 봉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교회, 양로원까지 공연에 나서고 있다.

국악을 좋아해서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박 동문 같이 판소리 세계 경연대회 시니어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쉽지 않다. 또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다는 색소폰과 클라리넷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다. 이제는 악기 중량 때문에 힘겹지만 아코디언에도 진심이다.

최근에는 앙상블과 함께 무대에서 연주회도 가졌다. 벌써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며 지내온 지도 내년이면 25년이 된다. 몇 년만 더 있으면 약국과 은행 경력과 엇비슷해진다.

예술인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은퇴와 함께 예술계로 나오면서 시작한 판소리 덕분에 2010년부터 ‘미주예술원 다루’ 이사장을 맡아 튼튼한 후원자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공연 단체이면서 예술 기획단체인 다루(대표 서연운)는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최초의 국악경연대회인 ‘미주 한국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는 이 대회의 대회장 자격으로 꾸준히 후원해왔다. 특히 지난 10월28일에는 10회 대회를 브랜드화해 개최했다.

바로 ‘어흥문화예술축제’로 명명하고

75년 첫 한인약국 시작해

82년 한미은행 창립 참여

가주 첫 국악대회 여는 등

우리 소리 알리는데 ‘앞장’

단순한 경연 대회만이 아닌 국악 예술인의 축제로 거듭나게 했다.

올해 3일간의 축제 첫 날엔 35개의 공연과 한복 패션쇼가, 둘째 날에는 무려 6시간 30분 동안 국악 경연이 진행됐고 사흘째는 경연 대회 입상자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23개 공연과 춘향 선발대회까지 선보였다. 결국 총 58개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공연팀 23명과 뉴욕 등 미 전역에서 500여 명의 공연자가 무대에 섰다. 미주에 있는 한국 국악인은 모두 모였다고 볼 수 있었다.

국악인 서연운 다루 대표는 “박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한 두 번 하고 말 것 같던 대회를 올해까지 이어왔고 축제까지 키울 수 있었다”면서 “박 이사장은 단순 후원자가 아니고 예술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술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박 동문의 ‘인생 1막’은 어땠을까.

서울 출생인 그는 서울고를 거쳐 1959년 모교 약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71년 부인 김벌리 여사와 함께 LA로 이민 와 이듬해 USC 약대에 편입했다. 1974년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음해 LA한인타운에서 첫 한인운영 약국인 ‘올림피아 약국’을 올림피아 길에 열었다.

지금은 50군데도 넘는 한인 약국이 있지만 첫 한인 약국은 단순한 약국의 의

미를 넘어선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밖까지 줄을 설 만큼 한인들이 몰려왔다.

약국 사업은 번창해 1979년 한인타운 3가와 세라노 인근에 2호점을, 2년 뒤엔 올림피아와 웨스턴 인근에 3호점을 오픈해 약국 3곳을 운영했다.

“한인 약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니 멀리서 찾아왔죠. 그러면 약만 사나요. 가족 이야기며 사는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영어 서류를 번역해 주고 심지어는 이민 상담도 했죠. 약국이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는 약국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도 한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잡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82년 미국 내 순수 한인 자본으로 설립된 첫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 창립에 참여했다.

“어느 날 평소 신뢰가 두터웠던 정원훈 씨가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집에 찾아왔어요. 당시엔 한인 자본으로 세운 한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창립 이사들에게 모두 큰 모험이었던 셈이죠.”

신뢰할 수 있는 은행가를 믿었고 그래서 한미은행 창립 이사가 됐다. 총 500만달러를 조지 최, 안이준, 안성주씨와 모았는데 그중 6%쯤을 투자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은행에 투자한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정 초대 행장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에 더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나 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한인들에게 문턱이 낮고 친근한 한인 은행을 원했다. 한인 타운에서 돈을 벌었기에 한인들의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은행을 시작한 것이다. 결과는 “한때 한미은행 너댓번째 개인 주주까지 됐다”고 전한다.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은행은 또 다른 인연이 있다. 미국에 온 첫째, USC약대 진학하고 보니 첫 1년 학비 7000달러를 구할 길이 없었다. 크레딧도 없고 어디 붙였는지도 모르는 코리아에서 온 낯선 학생이 약대 학비를 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가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는 일이 그때 일어났

다.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그의 얘기를 듣고 학비를 융자해줬다. 코리아에서 온 낯선 학생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불과 10여 년 후 한인 은행 창립 이사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미은행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 미주 대표 한인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그는 한미은행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2년 이사장을 맡아 한미은행 창립 20주년 행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설립 후 나스닥 상장을 비롯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10~15배까지 오를 정도였죠.”

그는 2008년 이사직을 사퇴했고 2년 뒤엔 약국도 모두 처분하고 은퇴했다.

그럼 박 동문은 요즘 음악만 하고 있을까.

그의 관심은 음악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가주 한인사회의 난 애호가들 사이에선 유명한 전문가다. 오래 전 지인에게 난을 선물 받은 뒤 난의 매력에 빠져 20여년 전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 두 주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600여 주에 이르러 정원에 300스퀘어피트 규모의 온실을 만들었다.

‘난 박사’가 된 그는 2001년 재미한인 난협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박 동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했던 것일까. 그의 다양한 음악 활동은 단지 취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 봉사활동에도 진심이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뭔지 모를 뿌듯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주 봉사는 꾸준히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그의 활동은 바로 2010년 고원 시인의 뜻을 기리고자 ‘고원기념 사업회’를 설립해 고원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비 건립과 문학의 밤 개최 등 미주 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고원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영동에 그의 시비를 건립하고 뒤에서 후원만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장병희 편집위원



박창규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주예술원 다루가 주최해 지난 10월말 풀러턴에서 열린 어흥문화예술축제에서 인기를 모은 춘향선발대회.

“동창회 도울 수 있어 기뻐”

종신이사 골드

조지아 이종석 동문(의대 54)

서울대 동문회 원로 중 한 명인 이종석 동문(의대54)이 최근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그는 최근 결성된 의대 동창회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통화에서 “이제껏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항상 기쁘고 건강하게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동창회를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동문은 지난 2022년 2월 부인 정정남 여사와 결혼 60주년을 맞아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며 매년 도울 예정이라며 크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 동문 부부는 맞선 본지 두 달만에 혼례를 치렀다. 서로 첫 눈에 반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이 동문 부부가 미국에 온 건 1964년이다. 필라델피아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정신과 의사가 됐다. 미국 정신과학

회 종신회원이기도 한 이 동문은 1998년 조지아로 이주해 15년을 더 일했다. 78세 되던 해 비로소 은퇴하고는 노년을 즐기고 있다.

열차 기관사였던 아버지, 전쟁과 가난을 겪는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결혼 후 부인의 권유로 신앙을 받아들였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에서 10년이나 성경을 공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 동문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인으로 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 이종석 동문 부부. 지난 2022년 회혼식에서의 모습. [이종석 동문 제공]

“후배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종신이사 골드

남가주 홍수웅 동문(의대 59)

동문 부부인 홍수웅-박초미 동문이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현재 남가주 풀러턴에 거주하는 홍 동문 부부는 홍 동문이 의대 59학번, 박 동문이 약대 61학

번이다. 65년에 함께 졸업했다.

홍 동문은 졸업 후인 1968년 미국으로 와서 유펜 의대에서 ENT/Head&Neck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됐다. 73년 7월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츠헤스피탈과 디바인 프로비던스 হাস피탈에서 34년을 근무했다.

이후 2007년 은퇴한 후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0년간 거주하다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정착했다. 자녀들은 모두 동부에 있다.

홍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후 한인들도 많고 날씨도 좋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면서 “캘리포니아는 후배들이 무척 많은 곳인데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장병희 편집위원

홍수웅 동문 부부.

[홍수웅 동문 제공]

“새로운 동문들과의 만남 큰 기대”

종신이사

조지아 석호태 동문(공대 85)

최근 남가주 지부에서 조지아 지부로 소속을 바꾼 석호태(건축학과 85) 동문이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가 됐다. 석 동문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황의경(의류학과 89, 건축학과 91) 동문과 2남(원준, 경진)을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1월18일 LA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했

다. 현 거주지는 버포드(Buford GA)다. 석 동문은 1985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를 입학해, 1991년 공학석사, 1995년 공학박사를 받고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석 동문은 지난 2010년 2월 미국으로 이민 와 LA에서 아치프로건설(Archipro Construction)을 설립해 현재까지 13년간 상업용 건축, 정부 공사 등을 수행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운영해 왔고 한단계 발전을 위해 조지아로 회사를 이전해 공장 건립 등 상업용 건물 건

축에 도전하기로 했다.

석 동문은 “미국에 이민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문들을 보면서 선후배님들에 대한 존경,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솟아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면서 “새로운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선후배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악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닌 다소 젊은(?) 동문들도 동창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석호태, 황의경 동문 부부.

“동창회가 구심점 돼 단결해야”

종신이사

뉴욕 최한용 동문(농대 58)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최한용(농대 58) 동문이 종신이사가 됐다. 최 동문은 모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신탁은행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차장까지 일했다. 지난 1978년 미국으로 이민 왔

다.

미국에 와서는 부동산 관련 일을 계속했고 현재는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 동문은 3형제가 모두 서울대 동문이다. 첫째 형인 최수용 동문은 상대 경제학과 55학번이고 지난 6월 작고한 둘째 형 최철용 동문은 농경제학과 57학번, 최 동문이 같은 과 58학번이다.

그는 부인 문선씨와 자식 농사도 성

공했다. 남매를 뒀고 둘 다 다트머스를 나왔는데 아들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MD)로 일하고 있고 딸도 고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최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문들이 이역만리 미국에 와서도 크게 성공하는 선후배가 많아서 항상 가슴 뿌듯하다”면서 “동창회가 구심점이 돼 단결해 더욱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리대 온라인 사랑방에 놀러 오세요”



문병길
(문리대 수학과 61)

남가주 문리대 동문들의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20년 간 운영됐던 문리대닷컴(mulidae.com)이 다시 문을 열었다.

문리대닷컴은 팬데믹 이전까지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며 활발하게 운영됐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서버 관리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문병길(수학 61.얼굴) 동문이 최근 이전 자료를 찾아 새로운 서버에 올리면서 운영이 재개된 것이다.

현재 서울대 동문과 관련돼 미주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는 미주 동창회 사이트(snuaa.org/main) 그리고 역시 최근 운영 재개가 논의 중인 아크로폴리스타임즈가 있다.

미주 동창회 사이트는 미 전역 동문을 대상으로 동문회보PDF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주 동창회 및 지역 동창회

남가주 문리대닷컴 운영 재개 다른 단대 동문들도 참여 환영



남가주문리대 웹사이트(mulidae.com) 최근 상황
October 18, 2023 at 5:27 pm

최근에 운영이 재개된 문리대닷컴의 홈페이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9월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뤄졌던 아크로폴리스타임즈는 수필, 여행기, 개인 스토리 등 길이가 긴 편인 문학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는데 비해 문리대닷컴은 미국식 BBS포럼 스타일의 사이트로 일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문병길 동문은 “이전 매우 활성화 돼 있었을 때 생각하면 매우 아쉽다”면서 “이제는 동송동 캠퍼스를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70대나 80대가 되는 바람

에 예전같이 액티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라인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동문은 이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일일이 보내는 등 사이트 운영 재개를 알리고 있으며 또한 이전에 사이트를 몰랐던 동문들의 새로운 가입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리대 출신이 아니라도 문호가 개방돼 있어 다른 단대 출신 동문들의 참여도 바라고 있다.

한편 옛 기록들은 홈페이지 상단의 ‘Forum Archive’ 링크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옛 문리대 사이트 기록들이 서버 업체의 폐업과 해커들의 교란으로 소멸위기에 있던 것을 PDF 파일로 복원했다.

문 동문은 “동문들의 귀중한 자료이기에 동송동 마로니에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있는 문리대 선후배 동문들이 열람해 볼 기회로 삼으면 보람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로운 문리대닷컴에는 동문들이 글을 신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상단에 ‘Forums’을 클릭하면 ‘동문잡지’, ‘자유게시판’ 등을 선택해 토픽을 올리거나 ‘문리대 소식’에 동문간의 연락사항이나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우측에는 최근 토픽을 곧바로 열람할 수 있으며 혹은 ‘member’를 클릭하여 동문의 개별 사진과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019년 4월부터 서버 운영비가 절감됐고 웹사이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문병길 동문의 자제인 문보현씨가 자원봉사로 맡아 별도의 후원금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 동문은 “사이트는 동송동 문리대의 추억을 나누기 원하는 문리대 동문이 있는 한 유지할 계획이며 동문들께서 자주 방문했던 학림 다방같은 사랑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사이트 서버 비용을 후원해 준 여러 동문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미국서 성공한 교훈, 후배들에 알리고 싶어”

남가주 이명선 동문 자서전 ‘성실’ 출간



이명선
(상대 58)

자비로 출판하려 했는데 출판사 나서서 일반 출판

남가주에 거주하는 이명선 동문(상대 58)이 지난 10월 자신의 자서전 ‘성실: 아메리칸 드림의 여정’(Sincerity, 선우미디어)을 출간했다. 한국의 유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출간 계기는 단순하다.

그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후배들에게 남기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동문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성실’과 ‘진실’을 전달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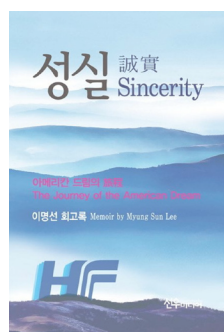
터뷰에서 “미국에선 특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적당히 하려 하기보단, 진실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고교 동기들도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그런데 마침 계기가 있었습니니다. 등떠밀려 시작한 일이지만 무사히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저술작업은 8월 말에야 끝났고 지난 10월4일부터 사흘간 열린 ‘서울고 졸업 65주년’ 모임에서 150여명의 동기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평소 틈틈이 얘기하던 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니 고교 동기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심지어 밤을 새워서 읽었다는 친구도 나왔다. 총 475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단번에 읽은 것이다.

이런 호응은 사실 예상됐다. 당초 ‘자비출판’으로 출간을 맡은 출판사에서 대표가 직접 전화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친구들과 친지, 후배들에게 전달할 요량으로 시작한 출간에 뜻밖에도 출판사가 일반 출판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다. 책 편집을 맡은 편집자가 작업을 하다가 감동했고 이런 훌륭한 내용은 일반 독자들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그는 “사실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진실과 진심을 담다 보니 길어져서 출판사에서 나중에 80페이지를 줄였을 정도”라며 “어린 시절 연애 얘기를 포함 세세하게 진짜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것이 이런 반응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학 초기 가난을 버텼던 시절부터 34년간 회사를 경영하던 시기에 걸쳐 기록된 에피소드들도 수록됐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인을 회사에 고용해 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챙겨준 일화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물론 책을 쓰는 것이 전문이 아니므로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협업했다.

작가는 그의 정리 안된 글을 줄기부터 정리해 줬고 문법, 맞춤법까지 도와줬다.

이 동문은 현재 ‘휴스턴 피어리스 76’ 이 사장을 맡고 있다. 모교 상과대학 상학과 58학번으로 모교 졸업 후 1966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USC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MBA 취득 후 공대에

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받았다. 그는 특수 마이크로 필름과 고속현상 기계 제조에 특화돼 있는 기계 제작 회사 ‘휴스턴 피어리스’를 인수해 ‘휴스턴 피어리스 76’을 설립했다. 원래 이 회사는 1930년대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설립했으나 1970년대 부실화돼 매물로 나온 것을 이 동문이 근무하다가 소액 투자로 인수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의 자서전 ‘성실’은 한국 서점가에 깔려 있고 당초 이 동문이 원했던 수량이 화물선을 통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앞서 일부 수량은 화물기를 통해 도착해 지난 10월19일 열린 상대 58학번 모임에서 전달했다.

오는 12월12일 서울고 모임에서 100권을 배포하고 12월16일 열리는 상과대학 연말 모임, 공군장교 연말 모임에서도 친지와 친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우리 보다 재미있는 동호회 있으면

남가주 마이티 게임 동호회

여러분들은 마이티(Mighty)라고 하는 카드 게임을 아시는지요? 70년대 학번부터 80년대 초반 학번까지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설적인 게임이다. 관악 캠퍼스, 그 이전 공대가 있던 공릉 캠퍼스 잔디밭은 당시 마이티를 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70년대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쳤고, 미국으로 건너와 UC 버클리와 UCLA등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미국 거주 현지 한인 학생들이 쳤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치며 명맥을 잇고 있다.

서울대 공대생들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도쿄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굳이 서울대생이 만든 게임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원들 못 만들어내겠는가?



박준창
(문리대 영문과 79)

마이티를 모른다면 등소평, 빌 게이츠, 마르티나 나블라틸로바가 열광하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브리지(Bridge)라는 게임은 아시는지? 아니면 하트(Heart)라는 게임은 아시는지? 이도저도 모르면 마작은 아시는지? 마이티는 브리거나 하트나 마작과 유사한 게임이기에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언급해 본다.

마이티는 bidding 게임이다. 조커 포함 53장의 카드로 치며, 각 무늬 중 A-K-Q-J-10은 “그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5장만이 중요한 카드이다. 이러한 총 20장의 그림 중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가 게임의 핵심. 5명이 치는데 5명 중 가장 많은 수의 그림을 획득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주공’이라고 불리는 주 공격수가 된다.

그리고 주공을 도와 주는 프렌드가 주공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그래서 공격조는 공언한 수의 그림을 획득해야 하고 3명의 수비조는 목표 그림 수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거의 같은 글을 2013년 1월 14일 남가주 동문들의 온라인 글 사랑방 아크로폴리스 타임즈에 실은 적이 있다. 아래 링크 열면 자세한 마이티 룰까지도 해설되어 있다.

<https://www.acropolistimes.com/articles/1784>

2010년 가을 첫 모임

‘마동’의 시작은 2010년, 그때 동문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아크로폴리스

스타임즈에 필자가 대학시절을 회고하는 글을 기고한 데서 부터다.

몇 안되던 79동기들이 2010년 봄 막발굴이 되면서 동기들끼리 모였고, 그 결 계기로 그 회고 글에 마이티 게임 얘기를 했었다. 마이티 얘기가 나오니, 한번 치자고 댓글들이 왔다 갔다 했고, 장소때문에 지체되다가 한 친구가 집을 흔쾌히 제공, 마침내 2010년 가을에 마동이 태동되었던 것.

그때부터 코비드 기간 빼고 햇수로 14년을 이어 오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그때 우리 마이티 모임을 알았던 한 지인의 말이 생각난다. “길어야 한 3년하고

79학번 동기들 14년째 거의 매주 만나 대학시절 처럼 웃고 떠들며 게임 즐겨 맛있는 음식에 술 곁들인 ‘행복한 하루’ 실력과 규칙 ‘최고의 리그’라고 자부

말걸.” 그 지인이 보기 좋게 틀렸다. 우린 코비드 빼면 거의 쉼 적이 없다. 50에 시작한 이 모임을, 60을 넘긴 반백 머리의 중 늙은이가 된 지금까지 거의 매주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

우리 서울대 동문회나 관악 연대에서 자주 만나는 끈끈한 소모임이나 동기회가 있었지만 그 어떤 모임도 우리 마이티 동호회(줄여서 ‘마동’)인데 마이티 치는 동무, 친구, 아동(?)의 준말도 되겠다)의 끈끈함과 규칙적인 만남은 못 따라 올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의 비결은?

첫째, 무엇보다도 게임이 재미가 있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 변수, 의외성, 미세한 차이로 지고 이기게 되는 아슬아슬함이 묘미다. 마이티는 기본적으로 기억력과 전략을 요구하는 게임이다.

물론 게임이니 운에 많이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카드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들의 자리 위치, 카드를 내는 순서, 카드의 분포 등 변



2010년 가을 첫 모임을 시작해 14년을 이어오고 있는 남가주 소모임 마이티 게임 동호회. 79학번 동기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박준창 동문 집에 정건수, 고정범, 김용상, 노갑성(이상 79학번), 민경훈(78) 동문이 모여 게임을 즐기고 있다.

수가 많아 무조건 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무한정 베틀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큰 돈이 걸려 있지 않다는 점(그동안 오고 간 돈을 플레이 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목요일 저녁에 치는데, 그 날 오후부터 그룹 카톡이 바쁘게 오고 간다. 저녁을 먼저 먹고 치기에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먹을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마이티 치는 날은 오후부터 우린 기대감에 즐겁게 흥분되어있다. 그리고 가끔씩은 늘 치는 마장을 떠나서 다른 마동 집에서 치기도 한다. 물론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함께 하면서다. 그리고 잘 치건 못 치건 다 이해를 해 준다. 도박성이 없도록 상금을 올리지도 않는다.

시즌제 도입 챔피언 가려

우리 마동은 프로 스포츠처럼 시즌제를 도입, 매 시즌 획득상금으로 챔피언을 가린다. 한 시즌은 3개월로 구성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플레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 하면 보통 하루 저녁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3개월간 플레이한 누적 상금 액수로 순위를 가린다.

마동 나름의 playoff도 있다. 시즌 마지막 2주는 상금을 2배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동의 playoff다. 시즌 내내 죽 쭈다가도 마지막 2주를 잘 하면 시즌 챔피언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학다니던 시절 마이티를 칠 때는 누가 얼마나 많이 잃고 땀는지 우린 그냥 짐작했을 뿐이었지만 이제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 일일이 매 라운드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를 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2010년 10월이니, 올해 2023년 햇수로 14년째다. 시즌으로 치면 코비드 기간 빼고 44 시즌 정도를 넘겼다.

필자가 우리 마동 명칭을 필자 마음

몇 센트 정도될까?),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interaction이 있다는 점, 2:3의 팀 매치라는 점, 목표 달성과 실패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벌칙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노름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일주일의 피로가 싹~

둘째, 마이티를 통한 동기들과 동문들의 만남이다. 79 학번을 주축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77-89학번들도 참여했고 참여한다. 마이티는 우릴 끈끈하게 엮어준다. 마이티를 치면서 우리는 40여년 전의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때 마음껏 치지 못했던 마이티를 원없이 치면서 우린 농담하고 웃고 즐거워한다.

마이티를 치면서 마장 안주인이 아낌없이 내어오는 과일과 스낵을 먹으며 우린 일주일의 피로를 날려 보낸다. 와인 광들을 위해 항상 누군가는 와인을 준비해 오고 非 와인 광들을 위해선 맥주도 서브가 된다.

주로 금요일 저녁에 치다가 요즘은

나와 보라 그래



이 카드 조합이 환상의 solo 패. 2:3으로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카드가 너무 좋으면 프렌드 없이 혼자 1:4로 칠 수 있다. 포커로 말하자면 royal straight flush에 해당하며 당연히 아주 낮은 확률이다. 1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

대로 SNU Super Mighty League라고 붙였는데, 마이티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실력과 규칙을 가진 리그라고 자부한다. 우리 마동 멤버들이 서울가서 옛 친구들과 마이티를 치면 우리 리그에서는 못 친다고 욕먹는 멤버들이 돈을 따 오고 잘 친다고 극도의 칭송을 들으니 말이다.

제로섬(zero sum) 게임이니 판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도 반드시 있다. 시즌 챔피언의 한 시즌 총 상금이 적으면 \$40 많으면 \$100 정도인데 챔피언은 꼭 저녁을 산다. 저녁 밥값이 당근 시즌 상금을 훨씬 넘지만 챔피언은 즐겁게 밥을 산다. 다 즐겁게 놀고 먹고 하는 것이니 상금보다 더 쓰면 어떡하리?

죽을 때까지 마이티 즐길 것

등소평, 빌 게이츠 말고도 마이티와 비슷한 브리지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레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도 그 중의 한 명. 병마가 닥치기 전,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판사로 남부러울 것 없었는데, 다 재미없고, 오로지 그에게 최고의 인생 재미는 브리지였다. 브리지에 대한 그의 애정을 소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아무리 연짙

은 일이 그의 인생에 닥쳐도 그 무엇보다 한 줄기 빛처럼 환한 즐거움은, 시끄럽지 않은 훌륭한 플레이어들과 앉아 브리지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 ……카드가 허용하는 한 영리하고 심각한 플레이를 하는 것과……한 잔의 와인과 함께 저녁도 하면서. 조금 돈을 땀으면 그는 특별히 행복한 기분에 젖어 침대에 들곤 했었다…”

이 대목에서 브리지를 마이티와 대체하면 정확히 우리 마동들이 마이티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브리지에도 미치는데 마이티는 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으니, 마동은 종교보다 더 광적이고,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있다. 마이티는 우리 마동의 행복하고 건전한 아편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 아편을 죽을 때까지 즐길 것이다.

잘칠때	魔藝	魔光	魔王	魔神	魔惡	魔皇	魔龍
당칠할때	魔哀	魔狂	魔蛙	魔失	魔愕	魔荒	魔翁
Season							
Accumulated Total	\$ (82.75)	\$ (94.50)	\$ 149.25	\$ 138.00	\$ (61.25)	\$ (92.75)	\$ 53.00
DAILY TOTAL	\$ (8.25)	\$ (44.00)	\$ 8.75	\$ 2.75	\$ 20.75	\$ 14.50	\$ 5.50
1R						\$ (3.00)	
2R		\$ (1.00)		\$ 0.50	\$ (0.50)	\$ 0.50	\$ 0.50
3R	\$ 1.00	\$ 1.00	\$ (2.00)	\$ 1.00		\$ (1.00)	
4R	\$ 22.00	\$ (10.00)	\$ (10.00)		\$ (10.00)		\$ 11.00
5R		\$ 1.00		\$ 1.00	\$ 1.00	\$ (2.00)	\$ (1.00)
6R	\$ 2.00	\$ (4.00)	\$ 2.00		\$ 2.00	\$ (2.00)	
7R	\$ 10.00	\$ 5.00	\$ (5.00)	\$ (5.00)			\$ (5.00)
8R	\$ 0.50			\$ 0.50	\$ (1.00)	\$ 0.50	\$ (0.50)
9R	\$ (1.50)	\$ 1.50	\$ 1.50	\$ 1.50	\$ (3.00)		
10R			\$ 1.25	\$ 1.25	\$ 1.25	\$ (2.50)	\$ (1.25)
11R	\$ 0.50	\$ 0.50	\$ (0.50)	\$ (1.00)			\$ 0.50
12R		\$ (0.25)		\$ (0.50)	\$ 0.25	\$ 0.25	\$ 0.25
13R	\$ (2.50)		\$ 1.25	\$ 1.25	\$ 1.25		\$ (1.25)
14R	\$ (1.25)	\$ 1.25	\$ 1.25		\$ 1.25	\$ (2.50)	
15R		\$ (1.00)	\$ 1.00	\$ 1.00		\$ (2.00)	\$ 1.00
16R					\$ (3.00)		
17R		\$ 0.50	\$ 0.50	\$ (0.50)	\$ (1.00)	\$ 0.50	
18R	\$ (5.00)		\$ (5.00)		\$ 12.00	\$ 6.00	\$ (5.00)
19R					\$ (3.00)		
20R		\$ (3.00)					
21R	\$ (10.00)	\$ (10.00)	\$ (10.00)		\$ 24.00	\$ 12.00	
22R	\$ (1.00)		\$ (2.00)	\$ 1.00	\$ 1.00		\$ 1.00
23R		\$ 1.75	\$ 1.75	\$ (1.75)		\$ 1.75	\$ (3.50)
24R	\$ (1.50)	\$ (3.00)			\$ 1.50	\$ 1.50	\$ 1.50
25R							\$ (3.00)
26R	\$ (10.00)	\$ (10.00)	\$ 11.00		\$ (10.00)		\$ 22.00
27R	\$ 0.75	\$ 0.75			\$ 0.75	\$ (0.75)	\$ (1.50)

비교적 초창기였던 2013년도 어느 날의 성적표. 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플레이어들의 별명이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김주환의 내면 소통
(정치82 · 연세대 교수)

“명상도 양치하듯 습관화 하세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근력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내면의 힘’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설파해왔다. 국내에 ‘회복탄력성’ 개념을 처음 소개하며 동명의 베스트셀러 책을 냈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힘인 ‘그릿(GRIT)’을 주제로 책을 내 또 한 번 열풍을 일으켰다. 연세대 야구부에서 명상 훈련을 시키는 멘탈 코치로도 알려졌다.

그런 그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내면소통’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김동문은 “‘회복탄력성’, ‘그릿’ 같은 성취 역량도 마음근력이 있어야 발휘된다”고 말한다. 마음근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훈련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본질이 바로 내면소통. 갈래는 명상이지만, 종교나 신비주의가 아닌 뇌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올해 출간한 책 ‘내면소통’에 앞서 유튜브 ‘김주환의 내면소통’에서 수년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명상과 훈련법을 소개해 14만여 구독자를 모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감정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몸과 행위의 문제, 일종의 몸의 움직임”이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몸이 굳고, 시험을 생각하면 배가 아픈 것은 ‘몸의 변화’이며, 이것을 뇌가 추론하고 해석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 이러한 감정은 생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보다 뇌의 기

본적인 작동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편도체 안정화’, 마음과 느낌에 집중하는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서, 수용, 존중, 감사 훈련’이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정적인 성격의 명상이라면, ‘메이스벨’, ‘페르시안 밀’ 등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고대의 진자 운동법이나 태극권 등은 ‘움직임 명상’으로 편도체 안정화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쿤달리니요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국제 케틀벨 코치(레벨 1)와 대한 우슈협회 우슈(태극권) 7단 자격을 가진 김 동문이 이따금 직접 운동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김 동문은 고교 시절 장자와 반야심경에 심취해 명상 수행을 시작했고, 대학 때는 암자 생활도 했다. 그는 “양치질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인간의 보편적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듯, 명상 수행도 그렇게 되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학습과 훈련의 효과는 잠자는 동안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기 전 10분씩 유튜브를 보면서 내면소통을 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채널에서 라이브 강의를 연다.

박수진 기자

▷‘김주환의 내면소통’ 채널 : <https://www.youtube.com/@joohankim>



휴스턴 지부



지난 10월7일 신임 이사장 이호성 동문 자택에 모인 휴스턴 지부 동문과 가족들.



동문들이 식사 후 너른 뒤뜰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호수와 맞닿은 드넓은 뒤뜰에서 이야기 웃음꽃”

지난 10월 7일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아 서울대 동문들이 휴스턴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모임은 텍사스 윌리스(Willis, TX)에 위치한 신임 이사장 이호성 동문(공대 72)의 자택에서 열렸는데, 집에서 손수 준비한 다채로운 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많은 동문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돕는 모습은 정겨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연상케 했다.

추석 명절 가족 모임 처럼 화기 애애

또한 운전이 어려운 동문들을 위해 김정환 회장(공대 80)과 최인섭 동문(공대 75)이 카풀을 자청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문 및 가족 2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중절모의 멋쟁이 신사 최용천 동문(의대 52)의 식사 기도로 시작되었는데, 최연장자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찜찜한 음성으로 후배들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며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

원했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는 자녀들의 취업 및 결혼 이야기, 그간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 소식, 에너지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식사 후 뒤뜰에서 이어진 소박한 피크닉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너른 뒤뜰은 호수와 맞닿아 있어 조용하고 전망이 좋을 뿐 아니라,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담소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흔들려 본 호숫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조그만 감들은, 그 맛이 어찌나 달고 보드라운지 추석 장터에서 볼 수 있던 토실토실 흥시감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함께 감을 나누어 먹으며 동문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가꾸고 있는 깻잎, 오이, 쪽파 등 맛깔스런 한국 채소 자랑에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의 재배 노하우를 공유했다. 글·사진=휴스턴 지부

뉴욕 지부

젊은 음악 동문들 모여 감사와 화합의 음악회



젊은 음대 동문들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다.



지난 11월12일 열린 동문 음악회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뉴욕 동문들.

유명 음대 석박사 과정 2015~2019 학번 10여명 유명 아리아, 가곡 등 선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 동문들이 한데 모여 동문들과 지역 한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한해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 동창회와 서울대 뉴욕 음악위원

회가 마련한 연례 행사로 11월12일 뉴저지주 린치우드에서 제1감리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200여명의 동문과 동포 손님들이 참석해 음악을 즐겼다.

이날 음악회에는 줄리어드 음대, 맨해튼 음대, 매네스 음대 등 뉴욕에 있는 명문 음대를 졸업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동문들과 아직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 중인 재학생 동문 10여명이 무대에 올라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나 뮤지컬 히트곡, 우리 가곡을 노래했고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등 기악곡도 연주했다.

뉴욕 서울음대 동문회장을 맡은 이준희(95) 동문이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았고 소프라노 지혜인, 마주영, 홍수희(이상 2015) 소프라노 임승현(2019), 바리톤 박근원(2014) 홍민기(2018), 테너 한근형(2015) 동문과 피아니스트 황소희(2008) 첼리스트 김현지(2018) 바이올리니스트 백세은(2018) 동문 등이 출연

했다. 이준희 동문이 이끄는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도 특별 출연해 ‘고향의 봄’ ‘메모리’ ‘You raise me up’ 등을 들려줬다.

연영재 뉴욕 동창회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후 “참석한 관객들이 젊은 동문들의 탁월한 음악적 기량에 찬사를 보냈다”며 “음악회를 통해 뉴욕지역 동창회가 친목을 다지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뉴욕지부



지난 11월4일 로스세라노스컨추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대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5오버파 친 8894팀 단체 우승 영예



이날 대회에 참가한 원로선배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제영혜71, 한효동58, 성주경68, 임춘택68 동문.



70년대를 대표하는 79학번들이 곤색 하의, 회색상의로 팀 컬러를 맞췄다. 김한석, 박준창, 유혜연, 정건수, 김용상 동문.(무순)



80학번들도 빨간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팀컬러를 맞췄다. 김희경, 박준태, 이상호, 황의준, 노신철 동문.(무순)

관악인비테이셔널골프 성료

남가주 동문들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인 제2회 관악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난 11월4일 치노힐스 소재 로스세라노스 컨추리클럽에서 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학번 대항전 성격의 이번대회에서 단체 1등은 15오버파를 기록한 8894팀(고민석 4오버, 장예진4, 이형준7)이 차지했다. 2등은 39오버파인 846팀(석호태12오버, 김종찬13, 김서현14), 3등은 역시 39오버파인 80팀(노신철4, 황의준17, 이상호18)에게 돌아갔다. 2등과 3등의 경우 상위 3명의 점수가 같지만 846팀의 4번째 득점자인 차기민(17오버) 동문이 낮아 2등이 됐다.

남자 메달리스트는 각각 4오버파를 친 고민석, 장예진, 노신철(80학번) 동문이 영예를 얻었다. 여자 메달리스트는 14오버파인 김서현씨(장준85의 배우자)가 차지했다.

남가주 가을 답지 않게 무척 더운 날씨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근접상, 장타상을 위한 보드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해 출전자들을 무척 당황하게 했다. 나중에 컨추리 클럽측에서 진상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앞서 라운딩에 나섰던 다른 토너먼트 그룹에서 자기그룹 보드로 착각해 모두 뽑아가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를 진행했던 김희경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미흡한 대회 진행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특히 니어홀과 롱디홀에 아무런 보드가 없어서 황당했을 것이다. 지난해 메달리스트 전영록 동문은 핀에 3인치로 붙였는데도 인정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행사의 톱10 성적은 다음과 같다. 공동1위 노신철 80학번, 장예진94, 고



흰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맞춘 8894팀. 고민석88, 이형준88, 윤정숙(이형준 배우자), 윤영미88, 송미선89, 나호성89, 최강국89, 최희선92, 조용국94, 장예진94 동문(무순).



대회를 앞두고 사범대 체육과 동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석88(각 4오버파), 4위 이동희81학번(6오버), 5위 이형준88(7), 6위 한경욱82(9), 7위 석호태85(12), 8위 김종찬85(13), 9위 김서현85(15), 10위 제영혜71(16) 동문이다. 또한 지난 대회 참가자 30명 중 성적이 많이 향상된 선수들 톱6도 다음과 같다. 1위 유혜연 79학번(-31타), 2위 이형준88(-20), 3위 손영아85(-18), 4위 조용국89(-18), 5위 최강국89(-15), 6위 김서현(장준85 배우자) (-12)씨다.

글=장병희 편집위원, 사진=김희경 동문

“또 한 해가 간다 …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더라”



김자성
(의대 77)

삶에서 때로 힘든 시기 찾아와도
이 또한 언젠가 다 지나가리니
좋은 나쁜든 가볍게 의연하게

2000년 Y2K로 컴퓨터 대란 등을 걱정하던 시절도 23년 전이다. 지나온 70년대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2000년이 오리라는 상상은 버거운 것이었다.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은 그전에 이 세상이 끝날 것으로 믿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은 늘 이어지지만, 지내보니 결국은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더라.

지난 몇 년 간접적으로 여러 죽음의 소식을 접했다. 누구는 코비드, 누구는 암 또는 심장마비, 중풍 등으로 돌아가셨다는. 진료실에 급성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가까운 친지가 갑자기 죽는 것을 계기로 불안이 증가하며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급성 우울증 상태로 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개인의 가장 깊은 불안인 죽음의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다가 연말에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터졌다. 서로에 대한 극한의 증오의 역사를 보면 거의 예정된 전쟁이다. 이래저래 뒤숭숭한 연말이다.

또 지난 한 해는 AI의 본격적 등장과 연관해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들렸다. 유튜브 등을 통한 폭발적 정보의 증가도 실감하는 한해였다. 시간과 관심만 있으면 여러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 쉽게 식견을 넓혀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도 차고 넘친다. 정보사회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편으로 기상 이변의 조짐도 여기저기 드러

나 보이고, 연초의 큰 강우로 우리 집도 비 피해를 꽤 받았다. 지붕을 고치는 분 말씀이 비 피해로 정말 바쁜 스케줄이라 했다. 전세계적으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집단적 환경적 재앙이 임박하다는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큰 현상들이 불확실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가운데, 개인들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다. 뭔가 거시적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어두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전 세계의 무대를 보고 있는 무명의 관객이 된 느낌이랄까.

돌아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의 매일 매일은 너무 일상적으로 흘러갔다. 주중과 주말로 구분되는 삶이다. 주중에는 오피스에서 이 삼십 분 간격으로 환자를 본다. 어찌 보면 노예가 된 기분이다. 오피스에 새로 TMS 치료를 도입해 약물로 치료가 지지부진한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 추가됐다. 다행히 Medicare로 커버가 된다. 그래서 메디케어 나이군에 있는 분들의 우울증은 거의 완전히 치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매일 만나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모든 것이 안정돼 있으면서 제한된 불면증 등으로만 찾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이다. 불안 수준이 높은 분들은 개인적이건 대규모 사회적인 불안정이건 모든 불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 감수성이 높아 스폰지처럼 불안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앓아 힘든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도 기진해 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틀이나 쉬는 주말을 갖기에 다시 기력을 충전할 수 있다. 지난 연 중 언젠가 부턴가는 수요일도 오후는 일을 쉬기로 했다. 주중에 아직 환한 대낮에 사무실을 나오니 한결 홀가분하다. 지인들에게 노예해방된 기분이라고 농담했다.

그런데 어떻게 불안이나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평안 또는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터득하도록 도와주려는 핵심적 내용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건강이, 특히 정신건강

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 다스리는 수련이 더 절실히 필요해지는 것이다.

노년기란 바닷가에서 마치 한 줌 모래를 퍼 올린 뒤 손가락 사이로 슬슬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상실감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각자에게 화두처럼 던져지는 연말이다.

많은 경우 돈에 여유가 있음이 이 시기의 안정감 여부를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기 훨씬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 크게 더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여럿 보았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과 통한다.

고래싸움 같은 와중에 새우 같은 우리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多幸이라는 말이 실은 행복이 많다는 뜻을 다시 상기해 본다. 2023년을 새우 등 터지지 않고 다행히 지나 갔다면, 실은 복 많은 한 해를 보냈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새우등 터지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금언을 떠올려 본다.

먼저 인생은 고통(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것. 그래서 삶에서는 때로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즉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무상(無常)의 진리.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 좋은 것은 누리되 집착이 없이 누리자는 것. 그래서 좋음과 나쁨의 파도가 올 때, 열린 마음으로 파도를 타는 의연함을 실천하자는 것.

말을 끝내고 보니 붓다의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10년 치매와 투쟁한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그렇게 못알아봤는데 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이문봉
(미대 76)

어머니를 저세상에 보내고 1년이 넘어 서야 글을 쓴다.

10년 넘게 치매로 본인도 우리도 힘들어서 누군가의 사연을 유튜브로 신문으로 보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최선인가 그리고 힘도 얻었고 고마움도 느꼈다.

누구나 그때 그 지경이 아니면 모르지 않는가. 이제 나도 애타시는 어느 분들한테 힘을 보태고 싶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뒤죽박죽이 된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미국에서 어렵게 살아도 붓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서서히 치매가 시작되면서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림도 의미를 잃고 생활도 환경도 비상대기조율이 불안과 근심이 왔다. 왜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물음 속에 매일 매순간이 급했다. 성격이 과격해져서 요양원도 돌봄이도 방법이 없고 오로지 우리만 돌봐야 하는 지경이 됐다.

아시는 분은 아는 일, 어느 경우나 다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신문에 돌보는 사람이 같이 죽는 기사도 있다. 이제는 너무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다. 누가 방법과 대처를 다 정리해서 알려줄 수 없다.

같이 환자가 되고 탈출구를 못찾아서 힘들어 한다. 순간이 정신을 잃게 한다.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파트 키, 약봉지 잃기, 집 못찾기, 음식 냄비도 태운다.

이렇게 시작될 때 혼자 뉘뉘선 안된다. 되도록 같이 있어야 좋다. 옆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두뇌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시련이다.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되는 시간이 일상이 된다. 자식도 못알아 보는 시간이 오고 자기 표시도 못한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변이 제대로 안나오는 시간도 온다. 약으로 하는 시간도 지난다. 변 때문에 고통스런 모습을 보다 보다, 급히 어머니 엉덩이 항문에 장갑낀 손가락으로 후벼 변을 뺀다.

어머니 항문에서 변을 빼 본 사람은 지금 눈시울을 적실 것이다.

근육이 풀리고 뼈가 굳고 부러지기 시작하면 고통도 표시가 안되는 시간이 온다.

화장실에 엮어서 옮기면 팔다리가 끊겨서 풀린 것이 막대 인형같다. 이것도 엮어본 사람이 겪는 것이다. 삶이 조용해지고 침묵 속에서 바쁘게 된다. 전쟁이다.

세상 모든 전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 삶을 태우는 일이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개인간이나 국가간에 벌어지고 있고, 욕심을 채우려 극렬분쟁을 한다. 그들은 어쨌든 최전선이다.

세상 많은 곳에서 시간을 다뤄가며 연구하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과학자도 있다. 최전선이다. 첨단 연구로 앞장을 서고 자량과 자부심으로 때가 되면 온세상을 도배도 한다.

아무도 아직까지 최선의 약도 처방도 모르니 치매 부모를 둔 사람도 최전선에 있지 않은가. 베개로 얼굴 덮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가혹한 경우가 있는가. 그 지경에 다다르면 안다. 물끄러미 쳐다보면 미안하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못 쳐다본다.

하느님이 인간을 데려가는 방법도 가지가지, 불만보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도통 우리 머리로는 모른다. 삶의 고티머리에 다다른 모든 사람은 최전선에 있

는 것이다. 미지의 영역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치매는 모든 것에서 떠난 것을 의미한다. 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토록 긴 시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떨 땐 맹하게도 인연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다가 또 어떨 땐 냉정히 삶의 정의를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도 느낀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어느 과학자의 선구적인 일과 같다. 전문가들도 딱히 정확한 처방이 없다. 최전선에서 환자를 모시게 된 것이고 누구나 하늘을 거역할 수 없는 일, 어쨌든 하늘을 돕는 일, 모든 사례가 개별적이다. 가급적 지지고 묶으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다. 참고, 숙명같이 여기고 또 참는 것, 바쁘게 움직이는 것, 못알아 보아도 같이 있고 늘 같은 일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특별히 꼭 잡으셨다. 본인도 가느다란 의식으로 10년 치매 투쟁의 마지막 이별을 하신 것이다. 나는 손 잡은 것으로 충분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날 만드시고 수없는 고생 속에서 자식과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됐지 무얼 또 바라겠는가. 우리는 그저 재미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다를 뿐이다.

문제풀이 치매예방은 옛말 ... ‘배우고 춤추세요’

40대부터 뇌 건강 관리 시작해야 일상 속 작은 노력 쌓이면 큰 도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다. 아직 치료가 어려운 치매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시기가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최소 15~20년 전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 40대에 들어섰다면 우리의 뇌로 눈을 돌려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치매예방은 인지를 중점적으로 자극해야 된다고 여겨졌다. 머리를 쥐어짜는 워크북으로 문제를 풀고 퍼즐도 맞추면서 기억과 계산능력을 자극하는 식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운동과 영양, 사회활동과 정서적 만족감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완벽한 비법은 없지만 일상 속 작은 노력이 꾸준히 쌓이고 합쳐지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땀을 흘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도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반복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3~4회 정도 춤을 추는 게 좋다. 특히나 사교댄스는 춤을 추면서 유산소 운동을 자연스레 하게 되고, 스텝과 동작을 새로 외워야 하고, 함께 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몸과 머리,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취미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젊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는 한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해내면서 나이에 비해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만 실제로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체스 등을 배우는 것도 좋다. 뭔가를 배우는 것은 도전적인 활동으로 기억력, 주의력 등



치매예방에는 몸과 머리,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춤이 최고라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두뇌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쉬은 것부터 점점 어려운 것으로 단계를 높여 도전할 수 있어 꾸준히 뇌를 자극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봉사 혹은 문화활동이 치매 및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캐나다 로트만 건강연구소 연구진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논문 73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봉사활동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높았으며, 우울증 위험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감소하고 수명은 증가했다.

연구진은 “일주일에 적어도 2~3시간 씩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봉사활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엔도르핀 분비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한 감정과 불안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자꾸 뭔가를 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 증상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징후인지 구분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면 위험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고대 유적지 … 낙원 같은 지중해 휴양지”

뉴잉글랜드 정선주 · 박영철 동문 부부, 튀르키예 3주 여행



튀르키예 여행 중인 박영철, 정선주 동문 부부.

뉴잉글랜드 정선주(간호대 68) 동문이 지난 9월 3주 동안 남편 박영철(농대 64) 동문과 함께 튀르키예(옛 터키)를 여행한 이야기를 보내왔다. 두 동문은 지난 2009년 은퇴하고 이듬해 페루 마추픽추를 여행한 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칠레 최남단 케이프혼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노르웨이 최북단 북극에 있는 마을까지 그동안 50개국 이상을 다녀왔다. 자연을 좋아해 파타고니아는 3번이나 찾았다.

정 동문은 “여행을 가면 대부분 하이킹을 하기 때문에 하루 3~4마일은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돼야한다”며 “여행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으니 여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동문과 박 동문은 둘다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을 지냈다.



페티에에서 7000피트 상공을 날았던 패러글라이딩.

2019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갈 때 터키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하면서 터키가 볼 것이 아주 많은 나라인 것을 알고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보스턴에서 10시간 걸려 도착한 이스탄불 공항은 너무 커서 인상적이었다.

처음 4일은 이스탄불에서 지내면서 관광 명소로 알려진 톱카프(Topkapi) 궁전,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성당,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블루 모스크 등을 방문했고 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 크루즈를 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어서 카파도키아(Cappadocia)로 가고 싶었다.

약 3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인근 수백km에 거대한 용암층이 형성되었고 오랜 세월 비바람과 홍수에 끊임없이 깎이고 닳아지면서 계곡을 따라 수백만 개의 기암괴석이 갖가지 모양으로 펼쳐진 곳이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신기한 지형을 한동안 내려다 봤다.

터키라는 나라가 넓어서 하루가 걸려 ‘신들의 휴양지’로 불리는 터키 남쪽의 안탈리아(Antalya)에 도착했다. 오랫동안 바로 앞에서 지중해를 바라봤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대 유적이 가득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다. 사도 바울이 첫번째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페르게(Perge)와 아스펜도스(Aspendos)가 이 지역에 있다.

터키에 초기 기독교 유적지와 유물이 이스라엘보다 많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볼 수 있었다. 동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동굴에서 산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항구 도시 페티에(Fethiye)로 이동해 4일간 굴렛(gulet)을 타고 지냈다. 돛대가 있는 전통 범선으로 이 배를 타고 여러 코브(cove)에 정박해서 하이킹을 하고 클레오파트가 목욕을 했다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며 평화롭고 인상적인 4일을 지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할 때 사람들 발길이 덜 닿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수백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 사이를 하이킹한 것도 좋았다.

패러글라이딩은 페티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트립 리더가 내일 패러글라이딩을 할 기회가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는 바람에 갑작스레 하게 됐다. 10명 가량이 함께 움직였는데 번쩍 손을 든 사람은 우리 부부 둘 뿐이었다.

9월임에도 너무 더워서 여행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이날 아침 하늘을 나는 동안 너무 즐거웠다. 이곳에서 지중해식 음식을 먹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여행 23일간 고대문명 유적지를 많이 찾아갔다. 모두 B.C. 몇백년, 몇천년 역사라 내머리가 기억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워낙 고대 유적지가 많아 이번 터키 여행은 내가 모르던 고대문명 역사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날씨 좋을 때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이다.

글 · 사진=정선주(간호대 68)



기암괴석이 계곡 따라 펼쳐진 카파도키아는 열기구 명소로 유명하다. 열기구를 탔다.



우리 부부는 여행을 하면 대부분 반나절 하이킹을 한다.



카파도키아에서 동네 사람들이 작물을 키우는 농장을 방문했다. 방울 토마토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



이스탄불 거리에서 우리네 옛날 처럼 옥수수와 밤 등을 구워 팔고 있다.



페티에에서 즐긴 지중해식 음식.



Milky Way Over Trona Pinnacles, Mojave Desert, California, 2016년 7월 1일

“모하비 사막 은하수 보며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됐다”



이기우
(문리대 물리학과 67)

7월이면 생생하게 마음에 젖어 드는 한 편의 추억이 있다.
미리내, 은하수!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몇 년 전 7

월 초, 밤에도 섭씨 43도(화씨 11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 외계인 영화를 많이 찍었다는 캘리포니아의 트로나 피너클스(Trona Pinnacles)를 찾았다. 모하비 사막 줄기에 있는 피너클스 사막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꼽힌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게 되는 여름철의 밝고 두터운 미리내를 보기 위하여 근처 작은 마을에 3박4일을 머물렀다. 매일 저녁, 차를 몰고 이곳을 찾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이번엔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뻔한 마지막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아치형의 거대한 은하수를 만났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 처럼, 나는 ‘단 하

나의 은하수’의 주인이 되었다.
새벽 1시.

괴물 같은 피너클스들이 산재한 곳에서 자신의 숨소리와 섯터 소리만이 들리는 캄캄한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무서움을 저 멀리 날려버렸다.

사진찍기를 멈추고 돛자리 깔고 누워, 초롱초롱 반짝이는 별들, 그 별들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얘기를 들었다. 자연의 신비롭고 엄숙한 대화 속에 파묻혀 나만의 꿈을 간직하기 위해.

별들의 집단인 은하가 수천억개가 모여 비로소 우주가 된다는 사실에,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이로운 행성과의 완전한 연결감과 황홀한 관계를 인지하게 느끼게 하는 말없음표, 예술혼이 있을뿐이었다.

워싱턴DC 이기우 동문은 자신을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연과 교감하는 물리학자'라고 소개했다.

매사추세츠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소를 거쳐 2013년 은퇴 후 사진을 배우며 찍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채 안되지만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여덟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사진전' 대상 등 사진 공모전에서 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 동문은 “내 사진작업은 자연과 우주의 신비스러움에 초점을 맞춘다”며 “대 자연을 만났을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또 카메라 가방을 메고 달려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밤 눈

월운 박진용(공대 63)

기다림도 잠든 밤
눈이 오네
사뿐 사뿐 내리네 그리움이런

어둠 깊이 접어 둔
먼 옛 이야기
아파도 놓지 못한 미웁한 사랑

눈 감아 불러 보련
애꿎던 작별
세월인들 잊으리 못 다한 옛 꿈

가로등 잠든 길목
눈이 오네
소복 소복 쌓이네 님 그리움

박진용 동문 보스턴 이주 고교 졸업 후 첫 동기 만남

고등학교 졸업하고 60년만에 처음 친구를 만났다. 대개 첫눈에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 모습을 그려 보면 곧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적 모습이다.

지난 11월 뉴잉글랜드의 K고등학교 동문 연말 모임에 59회 동기인 이강필(공대 64), 박진용(공대 63), 김우형(미주리대 졸업) 세 분이 60년 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세 분은 중학교도 동창이다.



경기고등학교 59회 동기인 이강필, 박진용, 김우형(왼쪽부터) 세 친구가 60년 만에 만났다.

워싱턴주에 살던 박진용 선배님이 둘째 딸이 MIT 교수로 있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면서 고교 동문 모임에 처음

참석한 것이다.

김우형 선배님은 박진용 선배님을 소개했고, 시인이 된 박선배님은 “즐거웠던 화동언덕을 떠난지 60년 만에 첫 만남이라 감회가 깊다”며 시 2편을 내놓았다.

2011년 아이다호대학에서 화공학 교수로 은퇴하기 전까지 평생 화공학도였던 박 선배님은 2004년 시문학지인 시 세계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제는 교수 박진용 보다 시인 박진용으로 불리기를 선호한다.

2편의 시가 우리만 보기에 아까워 동창회 단체 카톡방과 나의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다.

김정선(문리대 물리학과 66)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연준의 탄생, 조직,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알아본다

미국의 중앙은행적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를 하는 날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미국과 세계의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뉴욕의 동문 모임인 골든 클럽이 지난 11월말 경제학자인 폴로

리다 윤기향(법대 65) 동문을 초청해 연준의 탄생과 조직 그리고 기능과 역할 등 연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줌 세미나를 열었다.

윤 동문은 최근 세계 경제 이슈를 시와 소설, 신화와 유명 회화를 인용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영문 서적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를 펴내기도 했다. 미주 동문들도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윤 동문에게 세미나 강연 내용 기고를 부탁했다.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윤기향
(법대 65)

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의 발언은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 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한국의 주택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더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히 미국의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 연준 의장은 세계

비교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었다.

미국 중앙은행의 설립이 늦은 것은 그만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에 대한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에 대한 타협안으로 분권형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것이다. 미국 자체가 영국의 전제적 군주제도에 반발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건국의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집

신용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모두 갖춘 혼합형 중앙은행이었다.(1792년에는 해밀턴 장관의 권고에 따라 미 의회는 달러(dollar)를 미국의 기본 화폐단위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업과 소상공업이 주축을 이루었던 남부와 서부의 주들에서는 은행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고 그들은 주정부에 의한 은행 감독을 지지했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으로 미국은행은 그 활동 기한이 끝나는 1811년에 인가가 연장되지 않았고 이로써 미국은행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 ‘경제대통령’ 연준 의장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 왔으며 그러한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The Fed)이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지난 2022년 3월 이후 11차례나 연거푸 인상하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금리, 신용카드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고 하며 고용상황이 심각해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비단 미국경제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보다 국제화되고 개방화되어 있어 자금이 거의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세계 경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 상황보다도 미국 연준의 금리 동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관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하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순위에 있어서 연준 의장은 보통 대통령과 부통령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연준의 통화금융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이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연준의 탄생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다. 흔히 줄여서 연준(The Fed)이라고 불린다. 돈이 필요할 때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은행으로 가듯이 은행들은 돈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은행으로 간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의 연준은 빈번히 일어나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의해 1913년 설립되었다.

미국 중앙은행의 탄생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늦은 편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882년에 설립된 것과

중앙집권 권력에 대한 반발로 뒤늦게 출범 중앙은행 제도 확립에 중요한 두 인물은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잭슨 7대 대통령

권적 권력구조에 혐오를 가졌고 그 산물로서 미국이 연방국가로 탄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앙집권적 금융체제에 대한 혐오가 미국의 중앙은행의 탄생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일찍부터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 제도를 확립하게 된 배경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들은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포폴리스트였던 미국 7대 대통령 잭슨(Andrew Jackson)이었다.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의 틀을 다지려고 했을 때 항상 등장했던 이슈는 연방정부가 은행 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가 인허가권(charter)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연방정부의 은행 인허가권과 민간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옹호했다. 그의 노력으로 1791년에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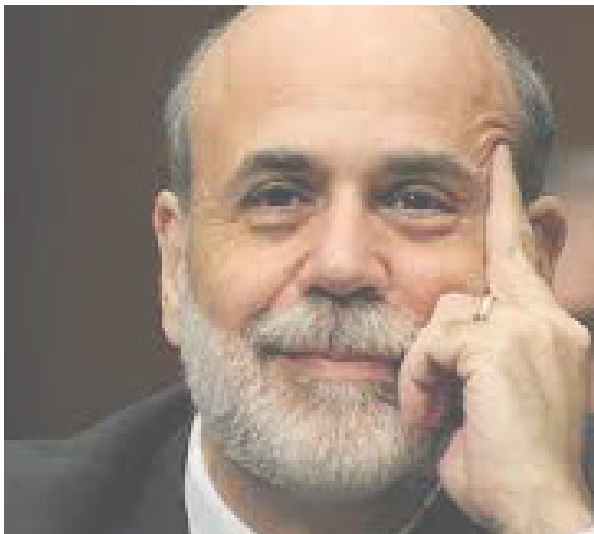
미국은행은 민간은행의 기능과 통화와

오직 주정부가 허가하는 주립은행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립은행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1812년에 발발한 전쟁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 때문에 미 의회는 1816년 제2미국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1832년 포폴리스트 후보였던 잭슨이 미국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제2미국은행의 활동 기한이 끝나는 1836년에 잭슨 대통령은 제2미국은행의 인가 재연장을 거부했다. 규제받지 않은 민간은행들의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금융체제가 혼란스러워지자 미국정부는 1863년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제정하여 은행들을 국립은행(national banks)과 주립은행(state banks)으로 나누는 이중금융체제(dual banking system)를 도입했으며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립은행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은행이며 주립은행은 각 주 정



'통화정책의 달인'이라 불리며 1986년부터 2006년까지 가장 오래 연준 의장을 한 앨런 그린스펀(맨 왼쪽). 2006년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이 된 벤 버냉키(가운데).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때 “헬로 컴퓨터로 궁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다. 제롬 파월(맨 오른쪽) 현 연준 의장.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 수준인 8.5%까지 치솟자 당시 0%였던 기준 금리를 11차례나 인상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은행이다. 이와 같이 미국경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1913년까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채 민간은행들만이 활동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중앙은행의 부재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거의 15년 간격으로 미국경제에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이 기간에 일어난 주요 금융위기를 열거해 보면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84년, 1893년, 그리고 19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등이다.

이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1907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미국 경제에 가져왔으며 그 이후 중앙은행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3. 연방준비제도의 조직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보아 다섯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 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자문회의(Federal Advisory Council),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그리고 회원 민간은행들(member banks)이다.

먼저 연준의 최정점에 있는 조직이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연준의 통화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연준이 통화금융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이지를 결정한다. 확장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말하며 긴축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이사회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을 감독하고 연준의 각종 규정을 제정한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들(Governors)로 구

성된다. 그리고 이들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다. 이들 이사들은 은행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선발된다. 대통령은 이들 이사들 가운데 한 명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장의 4년 임기는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시작되어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끝나게 된다. 이러한 임기 구조는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묘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원회가 우리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연준이사회 이사들로 채워지며 나머지 5명의 위원은 12명의 연방준비은행장들 가운데에서 선출된다.(뉴욕연방준비은행장은 상설 멤버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공개시장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이사회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개

준비은행이 거둔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권역 내에 있는 민간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권역 내에 있는 회원 은행들의 영업을 감독하고 회원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예치한 준비금을 관리하며 민간은행들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의 회원 민간은행들도 연준의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무성 산하

연준 이사회, 통화금융정책 기본 방향 결정 집행기구 12명 위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개적으로 국채 매입 매각 통해 통화량 조절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반인 2018년에 파월(Jerome Powell)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으며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했다.

연준 의장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던 사람은 통화정책의 달인(maestro)으로 불렸던 그린스팬(Alan Greenspan)이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 제2기 임기 중반인 1986년에 처음으로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뒤를 이은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되었다. 그는 다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의해 1994년과 1998년 재임명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아들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2002년에 그를 재임명함으로써 그의 다섯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의 다섯 번째 의장 임기가 끝나는 2006년에 부시 대통령이 프린스턴대 경제학교수였던 버냉키(Ben Bernanke)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으로써 그린스팬의 20년에 걸친 아성은 막을 내렸다.

이사회가 정한 기본 통화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다. 어떻게 보면 연방공개시장위

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재무성증권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12개의 경제 권역(districts)으로 나누고 이들 권역에 연방준비은행을 하나씩 두고 있다. 12개 권역 연방준비은행들은 New York,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Richmond, Atlanta, Chicago, St. Louis, Minneapolis, Kansas City, Dallas, and San Francisco에 소재하고 있다. New York 연방준비은행이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Minneapolis 연방준비은행이 가장 작다.

이들 연방준비은행들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반민반관의 준공적 금융기관(quasi-public institutions)의 성격을 갖는다. 각 권역 내에 있는 연준의 회원 민간은행들이 그 권역 내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방

통화관리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인가를 받는 국립은행들(national banks)은 자동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의 회원이 되며 주정부의 인가를 받는 주립은행들(state banks)은 회원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민간 상업은행들의 약 3분의 1이 회원 은행으로서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회원 가입률이 1947년에는 50%에 달했으나 매년 회원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윤기향: 법대 (65학번)

한국은행 조사제1부, 자금부 근무
University of Minnesota,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연구 논문 다수 (American Economic Review 등); Goole Scholar Citations: 700 회
저서: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시가 있는 경제학 (김영사), 현대거시경제론(법문사), 증권론의 논리, 투자의 예술 (씨앗출판사)

300억 모금 '5공'의 심장재단 출범과 한국 심장외과 급성장

세계 '심장의 날'을 보내며 되돌아본 한국 심장 수술의 역사



조중행
(의대 63)

시카고 흥부 심장외과 전문의
전 분당서울대병원 심장센터장

요즘 한국 의료의 큰 문제는 의사들에게 몸과 마음의 큰 스트레스가 요구되는 전문 과목, 생명과 직결된 외과 분야인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을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기피하여 앞으로 이들 분야의 미래가 염려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의학계의 대표적 기피학과인 흉부외과에도 한때 우수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다투어 지원하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가 아닐까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심혈관계 진료의 일선에 있었고 한국 심장흉부외과의 초기 과정을 지켜보았던 한 흉부외과 의료인의 시각으로 한국 심장외과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볼때, 1980년대 초 중반 영부인 이순자 여사 중심으로 설립된 심장재단의 지원과 또 여러 방송 언론기관의 지원 등에 힘입어 당시 한국 심장외과 분야는 급성장하였고 이 발전을 눈으로 지켜보며, 이 분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느끼게된 의과대학의 여러 우수한 졸업생들이 이 분야를 지원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건강보험이 정착되기 전, 경제개발 도중의 1980년대 한국에서, 고비용 심장수술의 혜택을 일반 시민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 국내에서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지금까지도) 인공심폐기(Heart Lung Machine), 체온조절장치 등 고가의 기계와 여러 소모품을 필수로 하는 심장수술의 혜택이 많은 서민 환자들에게 제공되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여건 및 의학계의 발전도 미흡하였다.

정치적인 논란과 혼란 속에 탄생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 시절, 경제적으로는 수입자유화, 통금 해제 등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보이던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의 방한을 전후하여 낸시 레이건 여사와 미



낸시 레이건 여사는 1983년 한국 방문 때 4살과 7살 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심장병 수술을 받게 했다.

1981년 한국의 심장수술 횟수는 총 325명 불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 주도로 새세대 심장재단 발족
언론 캠페인에 전국적 관심 일며 젊은 인재들 지원
흉부외과 선진국 수준 됐지만 이젠 기피 학과로

국 구호단체(Gift of Life) 등의 도움으로 한국 어린이 두 명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심장수술을 받게 했다. 이를 계기로 영부인 이순자씨 주도로 새세대 심장재단이 설립되었고 흉부외과 특히 심장 수술 분야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 범국민 모금 운동, 영화 '사랑의 대행진', 서울대병원 심장수술 TV 중계 등 언론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한국 심장 수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오늘의 잣대로 300억원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약 3800만 달러)이라는 엄청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벌의 기부과 정, 모금, 운영, 억울한 피해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그 결과를 놓고 볼때 한국 심장수술의 역사는 새세대 심장재단 발족(1984년 한국 심장재단으로 개명) 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많은 어린이 심장병 환자들이 그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서울대와 연세대 외 다른 대형병원도 없던 시절, 심장재단 출범 이전인 1981년 전국의 심장 수술 횟수는 총 325명(소아 210명, 성인 115명), 즉 한국 최고 의료기관의 심장수술 빈도가 1주일에 두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본인이 미국 수련을 마치던 1979년 경 뉴욕 주립대 병원의 1년 심장수술 건수는 성인과 소아 포함 1000 케이스에 달했다.

요즘 서울 대형 병원의 활발한 심장수술 현황을 보면 돌아가신 이 분야 선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1970년대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보장 인구가 50% 미만이던 1984년 2월 새세대 심장 재단이 활동을 시

작하면서 첫째 심장수술 횟수는 두배로 증가했다. 한국 심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소아 480명, 성인 150명 포함 모두 630명이 수술을 받았다. 한국 양대 병원의 심장수술 횟수가 적어도 매일 한 번씩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정밀 진단, 심폐기 운전, 마취, 중환자 진료 등 종합적 협력이 필수인 심장수술 분야에서 한국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장수술에 참여하던 젊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그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한국 심장수술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이들을 본받아 많은 우수한 의대생들이 흉부외과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경제 강국이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는 더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전 사회에 퍼지고, 의료계도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희생이 요구되는 분야는 피하고 대신 피부 미용,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Life Style 학과)로 몰리면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인재를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런 현상을 바꾸려는 근시안적 방책들은 아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이제 의료계의 실무자, 의학계 지도자, 보건 정책 담당자, 정치계에서 장기적 목표를 향한 수정 작업이 필요한 때다.

젊은이들이 힘든 수련과정을 마친 후 전국 각 병원의 필수분야에 퍼져서 자신들의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9월29일 미국에서 심장의 날을 보내며 한국 의학 역사에서 출발은 가장 늦었으나, 단기간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심장흉부외과의 발전 시기가 정치적 논란과 안타까운 희생 속에 탄생한 제 5 공화국시절 한국 심장재단이 출범했던 1984년 전후였음을 돌이켜 본다.

의학 발전 공로 2021 합춘대상 수상

조중행 동문(사진)은 서울의대 졸업(69년) 후 미국으로 건너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35년간 시카고 셔먼 병원에서 근무했다. 2003년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 선진 심장질환치료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2년간 심장센터장을 맡았다.

외국의 전문의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던 당시 한국 실정상 59세의 나이로 흉부외과 전문의 시험을 다시 치렀을 만큼 한국 심장수술 발전을 향한 그의 의지는 강했다.

2년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심장



센터에 1억원을 기부했다. 2015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2021년 서울의대동창회가 의학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학교 명예를 빛낸 동문에 게 수여하는 합춘대상을 받았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천원의 식사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_____ 연락처(이메일):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미국도서관협회 국제혁신상 받은 모교 중앙 도서관

도서 대출 이력 활용 LikeSNU 외부인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지식 전달의 매체가 물리적 책에서 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시대.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전통적 역할에 멈춰선 '쓸모'를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LikeSNU 사업은 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한 단면이다. 최근 10년간 축적된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대출 이력 약 250만 건을 바탕으로 나에게 딱 맞는 책과 학문 분야를 추천해준다.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 중 올해 2월 1차 사업이 완료됐을 뿐인데, 미국도서관협회의 국제혁신상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서관 프로젝트에 주는 상이다.

LikeSNU 서비스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likesnu.snu.ac.kr/main>)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소장 자료의 활용을 지식 세계를 조망하고 탐험하는 여정에 빛대어 지식 지도, 지식 나침반, 지식 망원경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중앙도서관의 도서대출 이력에 기반해 서울대 구성원은 '서울대답게', 외부인도 '서울대처럼'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맞춤형 도서 로드맵과 학문 분야 간 연관 지도를 제공한다.

나침반은 자신이 읽은 책의 분야와 권

수를, 망원경은 이를 바탕으로 한 추천 서적을 안내해주는데, 개인의 독서 이력만이 아닌 관심 분야와 독서 수준이 비슷한 서울대 구성원의 독서 패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모교 구성원의 도서대출 이력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식 탐구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셈.

△컴퓨터 과학·정보·종류 △사회과학 △문학 △역사·지리 △예술·장식 예술 △종교 △언어 △자연과학·수학 △기술과학·응용과학 △철학·심리학 등 10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500권을 주린 지식 지도는 책 하나에 점 하나를 대응시키고 대출 이력을 책과 책 사이의 선으로 이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별들을 거미줄처럼 엮은 듯한 인상을 풍긴다.

지식 지도엔 500선 지도 외 연관도서 지도, 연관 분야 지도가 더 있다. 연관도서 지도는 500선 지도를 통해 책을 고르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전에 읽은 책과 이후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또 몇 명이나 그 책을 읽었는지 표시하며, 연관 분야 지도는 자기가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의 분야와 연관이 깊은 학문 분야의 책을 추천해 준다.

내년 2월 LikeSNU 2차 사업이 완료되



미국도서관협회 국제혁신상 받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면 도서뿐 아니라 학술 및 학위논문, 강의계획서, 학사 데이터까지 포괄할 예정이며 10개 분야로 나뉜 경계마저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개인별 도서 컬렉션을 생성, 이용자 간 컬렉션을 팔로우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SNU컬렉션'도 2차 사업 완료 후 기대되는 서비스. 교수·학생·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독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이력을 본인이 원할 경우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의 플레이리스트처럼 공개함으로써 서울대의 지식 자원을 학내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학외 연구자에게도 공유할 예정. 서울대인 셀럽의 독서 이력을 쫓아가면 책 읽는 재미가 더욱 쏠쏠할 듯하다.

모교 중앙도서관 혁신의 또 다른 단면

은 라키비움(Larchiveum)이다. 모교 박물관을 고려해 비도서 자료를 수집, 전시 하되 제작 연도를 근현대로 제한했고 모교 기록관을 고려해 서울대 '조직'에 대한 기록물보단 서울대 출신 '인물'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한다.

애초에 모교 중앙도서관은 책을 빌려 읽거나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탈피한 지 오래다. 2015년 2월 관정관이 개관하면서 기존 중앙도서관은 본관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자료 이용 공간으로 거듭났고 관정관은 대형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미디어서비스센터, 관정미디어플렉스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의 역할을 주로 맡아 중앙도서관 전체가 학술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나경태 기자

AI 이용 운전석 내비와 이야기 주고받는 날 머잖았다

실생활 파고드는 생성형 AI 틀린 것 없는지 결과 살펴야

“내비 찍고 운전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막히는 길을 안내하냐’, ‘말귀 참 못 알아듣네’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묵묵부답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제가 찾은 최선이었어요’, ‘오늘 좀 예민하신 거 같네요’라고 대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문답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대화가 가능한 AI가 일상화될 겁니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수요특강에서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모교 컴퓨터공학 1회 졸업생인 한상기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삼성컴퓨터 등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대표 및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이후 카이스트,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현재에 종사하고 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허(Her)’ 보셨습니까? 대필작가인 주인공 ‘테오도르’가 조그만 이어폰을 종일 귀에 끼고 다니면



한상기
(전자계산기공학78)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 AI 운영체제 ‘사만다’와 대화합니다.

온갖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랑을 느끼기까지 하죠. 저는 이러한 감성 대화형 AI가 과업 지원 중심의 AI보다 더 큰 과급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요즘 청년들 다 외롭거든요.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데 사람한테 안 가려고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니까요.”

한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맞은편에 앉은 직장 동료에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육성보다 메시지가 편하다고 하는 부하 직원

의 예를 들어 “20년 전 이미 대면·음성 대화보다 비대면·문자 대화에 더 친숙한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AI와의 대화를 거부감 없이, 외려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성 대화형 AI 시장이 굉장히 각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안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어폰을 꽂고 중얼거리는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일을 돕는 AI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되면서 알고 싶은 것, 지시하고 싶은 것을 자연어의 문장으로 입출력할 수 있게 됐죠. 기계어를 배울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익숙한 언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에 힘입어 약 1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AI 연구의 과제는 음성, 문자, 이미지 따위를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쪽으로 관심이 확 옮겨졌죠. 인식 측면에선 이미 인간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생성형 AI의 편리함은 취하되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사실에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미국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제출하라

는 판사의 지시에 변호사가 10개의 판례를 제출했는데, 그중 7개가 실재하지 않는 판례였어요. 챗GPT가 쓴 거라고 실토하고 벌금을 물었죠.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와 단어 간 발생 확률에 따라 조합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진위나 사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죠.”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AI는 가상 인물과 현실 인물을 동일 시공간에 그려 넣거나 사람이 허공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 마치 ‘환각’ 상태에 있는 것처럼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태연히 그려지거나 글로 쓰여지는 것. 한국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줄줄 읊는 식이다. 환각은 AI 생성 콘텐츠가 신뢰받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문장과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허위 사실, 가짜 이미지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꾸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연구 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이권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학천
(치대 70)

고엽의 계절을 노래하다

펜데믹과의 오랜 씨름으로 지친 심신이 겨우 기지개를 피울 만하다 싶을 때 맞이한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세월이 아속했으나 스잔한 바람과 함께 잊은 줄 알았던 가을이 슬며시 찾아와 주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상념에 젖게 만들고 시인이 된 느낌을 주는 것을 보니 그렇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면 가을이다/.../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다/편지를 부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다/.../가을은 가을이란 말속에 있다’(김대규 ‘가을의 노래’).

그래 가을이구나! 가을!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뒹는 소리를’ 물은 구르몽,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며 소망을 간구하던 릴케, ‘낙엽이 지거든 물

어보십시오/사랑은 왜/낮은 곳에 있는지’를 품은 안도현 등 이 가을을 더 애뜻하고 그림계 만드는 시어(詩語)들이 떠오르는 계절.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은 영원한 가을 시(詩)라면 역시 세기의 연인 이브 몽땅의 ‘고엽(枯葉)’이 아닐는지. 프랑스어로 ‘죽은 나뭇잎들’이라는 제목처럼 늦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떠나간 연인을 그리는 추억의 노래.

이브 몽땅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지 얼마 후 파시스트 정권을 피해 가족이 프랑스로 이주해야했다. 허나 막상 프랑스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고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11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돈벌이에 나서 막노동을 하다가 뮤직살롱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타고난 음악 감각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특이한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파리의 카바레 몰랭루즈에서 만난 여섯 살 연상의 정상가수 에디트 피아프와 연인이 되어 같이 살았지만 얼마 후 헤어지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영화에도 데뷔하면서 샹송가수 겸 배우로도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프랑스 유명 여배우였던 시몬 시뇨레는 남편과 이혼하고 이브 몽땅의 반려자가 되어 30 여년을 살았는데 그의 화려한 여성편력에 마음고생이 심했으나

언제나 그를 변호하고 가정을 지켜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시몬은 그에게 저명한 작가들의 책들을 읽도록 했으니 첫사랑 에디트 피아프가 그가 가수로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면 아내 시몬은 그의 지성을 쌓는데 스승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그가 가난으로 학력이 낮으면서도 당대의 지식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交遊)한 지식인일 수 있었던게 아닐는지.

그런 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묘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데 그것은 시몬이 그에게겐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인 자크 프레베르가 작사한 고엽 시(詩) 한부분을 감상 해보자. ‘기억해 보세요, 함께 지낸 행복스런 나날들을/.../나는 그 나날들을 잊을 수 없어서 마른 잎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어요/모든 추억도, 또 모든 후회도 함께/.../하지만 인생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 놓지요. 아무 소리도 없이/그리고 바다는 모래위에 남겨진 헤어진 연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리죠’

마른잎, ‘고엽(枯葉)’. 한 계절 푸르던 나뭇잎들이 11월,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들고 낙엽이 되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 그렇다고 낙엽이 쓸쓸하고 허망한 것일까? 아니다. 앙상한 나

뭇가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나무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또 다른 새 생명의 씨앗을 그 속에 잉태하고 있어서다. 해서 가을을 ‘부활의 시간’ 이라고도 하는 것인 즉 우리도 모든 욕망을 떨쳐 버리고 우리 본래 모습으로 회귀해야 할 때인 바로 지금, ‘가을에는/호을로 있게 하소서’ (김현승) 기도했을 터.

또한 11월은 우리말로 ‘눈마중달’이라고도 한다. 첫눈을 마중나가 맞이하는 것. 마중물이 땅 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을 끌어올리듯 무언가를 마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겨운 일인진저. 허니 11월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중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해서 체로키 인디언들이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하는지도.

어쨌거나 그리고 보니 우리에게도 ‘고엽’ 못지 않은 ‘명동의 상송’이라는 추억의 시(詩) 노래가 있구나!

‘나뭇잎은 떨어지고/나뭇잎은 흙이되고/나뭇잎에 덮혀서/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지금 그사람 이름은 잊어지만/그 눈동자 입술은/내서늘한 가슴에 있네/...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High Five’의 함암 효과

1977년 10월 2일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다저 스타디움엔 5만 여 구름관중이 몰렸다. 6회 말 홈팀 다저스의 공격. 더스티 베이커가 타석에 들어섰다. 좌익수 겸 5번 타자. 그가 과연 기록을 깨뜨릴지. 5만 여 명의 눈길이 베이커에 쏠렸다.

베이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J.R. 리처드와 맞섰다. 제3구 째. 한 가운데로 밋밋한 공이 흘렀다. 훗날 베이커는 볼이 농구공만큼 크게 보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방망이를 슬쩍 갖다 댔는데도 공은 높게 포물선을 그렸다.

다저스의 중계 아나운서 빈 스킨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쉬 이즈 곤 (she is gone)!’ 공이 훌쩍 사라졌다는 뜻. 스킨리는 홈런을 이렇게 예들려 표현했다.

베이커는 관중들에게 키스를 뿌려대며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돌았다. 홈에서 그를 맞이한 선수는 팀의 막내 글렌 버크. 다음 타순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오른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손바닥을 편 채. 베이커도 거의 반사적

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이 장면을 일컬어 ‘하이파이브(high five)’라고 불렀다. 기쁨의 표시인 손뼉 맞장구, 이른바 ‘하이파이브’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버크도 이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쳤다. 이번엔 베이커가 그를 홈에서 기다렸다. 멋진 ‘하이파이브’와 함께. 감독은 타미 라소다. 그 역시 초짜 매니저였다. 감격에 겨운 나머지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부둥켜안았다.

그날 베이커의 홈런으로 다저스는 야구역사를 새로 썼다. 한 시즌에 4명의 선수가 홈런을 최소 30개씩 터트린 최초의 구단으로 기록된 것이다. 주역은 베이커를 포함해 스티브 가비, 레지스 미스, 론 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다저스는 영원한 라이벌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아깝게 우승은 놓쳤지만 ‘하이파이브’는 환희와 격

려의 상징으로 지금도 세계인들에 깊숙이 각인돼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베이커는 코치로 나서 또다른 기록을 세운다. 내셔널 리그(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아메리칸 리그(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각각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유일한 감독으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 2023년 이번 시즌에서도 휴스턴 감독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에 도전했으나 텍사스 레인저스에 패해 월드시리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구는 알려진대로 정신, 곧 멘털의 경기다. 하이파이브를 더 자주하는 팀이 승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와있을 정도로 신체 접촉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높여준다. 어디 야구뿐이라. 요즘은 풋볼과 농구, 축구 등 전 스포츠 종목에 걸쳐 하이파이브가 선수들 사이에 유행이다.

심지어 면역력을 높여줘 사망률을 낮춘다는 의학계의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하루에 몇 차례 하이파이브를 하면 기분이 ‘업’ 돼 암세포의 번식을 막

아준다는 것. 임상실험 결과이니 그 효과를 믿어도 괜찮을 듯싶다.

덴마크에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600명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 A에게는 매일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에 속한 환자들의 수명이 B보다 5년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의학계 일각에선 악수 대신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대체하자는 캠페인도 일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이유에서다.

야구에서 비롯됐지만 하이파이브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분명할 터. 동창회에서 동문을 만나도 하이파이브, 아내와 남편에게도 하이파이브, 이웃에게도 하이파이브. 긍정의 힘이 온몸을 휘감아 활력이 넘쳐나지 않을까.

11~12월 연말은 감사의 계절이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직접 하이파이브를 못할 상황이면 줌으로 ‘에어파이브(air five)’를 날려 보내도 괜찮을 테고.

www.snu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조지아 - 이종석 (의대 54)

코네티컷 - 오인석 (법대 58)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호수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권봉성 (문리대 64)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웅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공순옥 (간호대 66)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이은상 (상대 52)

미네소타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민홍기 (문리대 61)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illegible]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송영두 (공 59) 200

박한영 (치) 100

백옥자 (음 71) 200

이법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임낙균 (악 64) 10,000

전상옥 (사 52) 10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석 (공 61) 200

신응남 (농 70) 500

김해남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네바다

김삼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위싱턴DC

박광일 (농 6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서윤석 (의 62) 2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묘 (간 69) 240

석창호 (의 66) 240

뉴욕

신응남 (농 70) 240

장학기금

위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3,0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미주재단 5,000

박수경 (생 84) 9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본국 서울대

미주발전재단 2,000

모교발전기금

위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uauasa17@gmail.com

자문자 / 서비스	
APW, 자문자 부름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apw.com
웹사이트	www.apw.com
기업	
주거의 길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homepath.com
웹사이트	www.homepath.com
ACCU Construction, Inc.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accu.com
웹사이트	www.accu.com
미국 건축사 협회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naab.org
웹사이트	www.naab.org
San Bernarado Post Office Inc.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sbnpo.com
웹사이트	www.sbnpo.com
뉴스 뉴스	
공인회계사	
PL CPA & Associates LLC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plcpa.com
웹사이트	www.plcpa.com
직업	
New York Golf Center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nygc.com
웹사이트	www.nygc.com
변호사	
신용상 변호사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shinshang.com
웹사이트	www.shinshang.com
금융	
Financial Services Investment - Financial Advisor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fsi.com
웹사이트	www.fsi.com
의료 / 병원	
백악관 의료부서	
전화번호	800-777-7777
이메일	info@whitehouse.gov
웹사이트	www.whitehouse.gov

박정호 부장학과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이명희 석좌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김태일 장신석학 전문석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박정호 석좌과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이명희 석좌과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윤석환 석좌과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김태일 장신석학 전문석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박정호 석좌과
학점: 3.000000
학번: 2017-2018-2019
학위: Bachelor's, M.S., Ph.D. / 1999

[illegible]

계정 / 보필 / 전설번호	
CS용서-광복보필 / 농악-라이프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Fairway Asset Corporation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멀티멀티어 FA	
건축	
Timothy Heals & Asia,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외국 / 외국	
Blue Bell Family Company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오래된 오래	
엔지니어링	
Florida Inc.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 부동산-부동산	
부동산-부동산	

가라지
서울대학교 한국학 교육 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전화: 02-552-1234
www.garage.com
조각가
건축
Architects Construction LLC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TEL: 02-552-1234, info@architects.com
www.architects.com, www.architects.com
www.architects.com
의료
Admiral Animal Hospital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TEL: 02-552-1234
www.admiral.com, www.admiral.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 \$200	☐ \$500	☐ \$1,000	☐ \$_____	☐ \$100 (2023/7~2024/6, 1년)	☐ \$200 (2023/7~2025/6, 2년)	☐ \$3,000 이상	☐ \$5,000 실버	☐ \$10,000 골드	☐ \$_____	☐ \$240 (2023/7월 ~ 2024/6월, 1년)	☐ \$480 (2023/7월 ~ 2025/6월, 2년)	☐ \$500 (2023/7월 ~ 2024/6월, 1년)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 전면 10"x12" Color	☐ 전면 10"x12" Black	☐ 1/3면 10"x4" Color	☐ \$1,500	☐ \$2,000	☐ \$400	☐ \$500 (1년, 3.5" x 2")	☐ \$1,000 (1년, 5" x 4.5")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 (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수(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안혜정(가)/함은선(음, 워싱턴DC)
홍보국장: 김승배(음)
오락국장: 임항균(사)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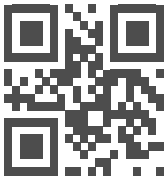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례(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	---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	---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법섭(공 79)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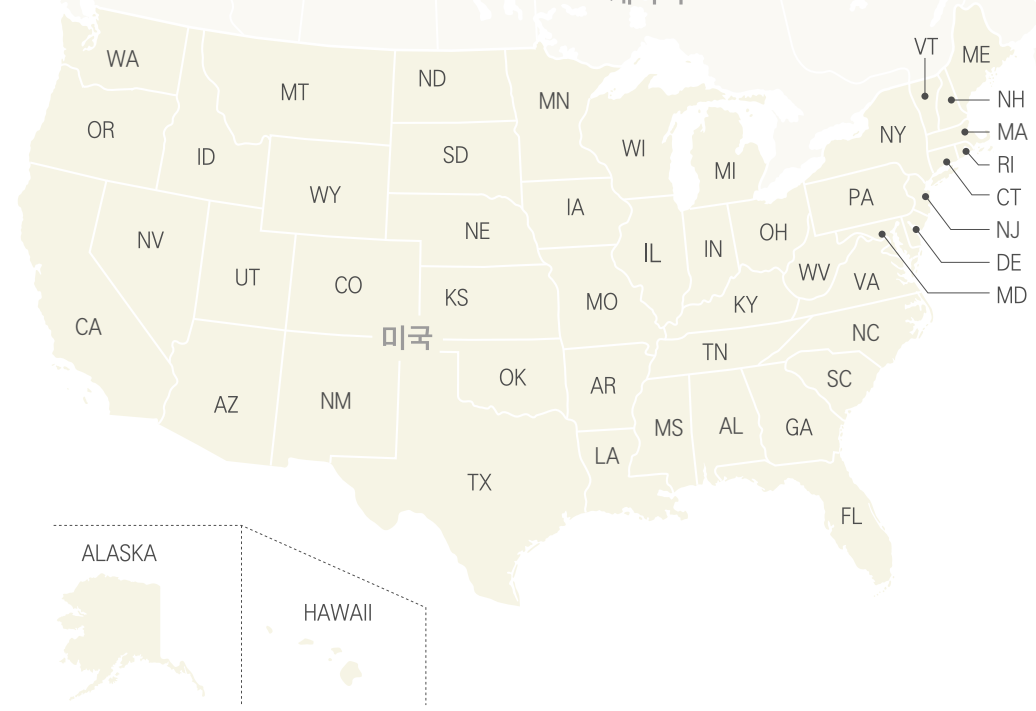
회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대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 (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헌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회장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	---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	-----------------------------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310) 689-6366 syecom@vols.utk.edu
--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http://animalmedicalclinicfullerton.com/>







한남체인

www.hannamchain.com



한남체인

건강한 최고의 식탁을 한남체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Torrance(Del Amo)

토랜스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